



티모르 딜리타의 5월 이야기

# Maio 2015

Segunda	Tersa	Quarta	Kinta	Sexta	Sabadu	domingu
				1 노동절 휴일 (휴일 반납)	2 Beach Side 호텔 나들이	3 Avengers2 영화관람 (티모르 플라자)
4 350PPM 캠페인 준비 시작	5	6 Lisa 생일 아이들과 레가	7 350PPM 캠페인 센터 미팅	8 쓰레기장 Tibar 견학	9	10 성당 미사 참여 (아이들 성가대)
11 안토니오 총장님 코디네이터 미팅 참석 (티모르→필리핀)	12 Terra-Santa Festa! (유아세레 축하)	13 350PPM 캠페인 수업(Boot)	14 350PPM 캠페인 연극준비 시작 (Boot)	15 한국 대사관 콘서트구경	16 피스커피 근처 딜리마트 방문 나들이	17
18 350PPM 캠페인 설문조사 시작	19 산타크루즈 방문 & 독립기념 박물관 방문 (with 오라시오 전 총 장님)	20 티모르 독립기념일 (센터 휴일)	21 안토니오 총장님 센터 복귀 (필리핀→티모르)	22 350PPM 캠페인 설문조사 종료	23 구제시장 탐방 나들이	24
25	26	27	28 350PPM 캠페인 홍보 포스터 부착	29	30 350PPM 캠페인의 날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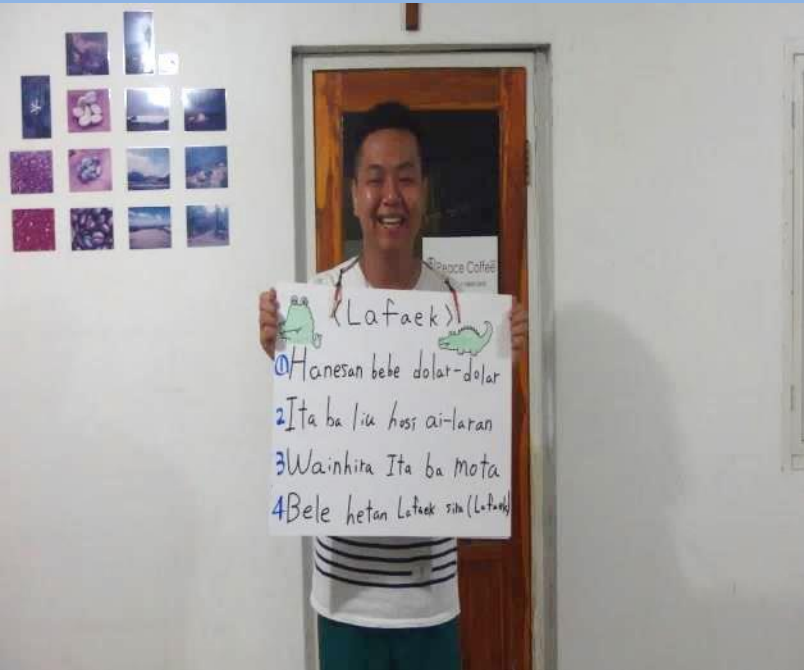
# 테라산타 이야기

# Attī klase : Muzika(kīik) - Ivo

5월에 들어서면서 오전에 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인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센터에 오지 않는 남자 아이들, 먼 곳에 있어서 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다.

수업 방식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오전 수업에 돌아다니며 길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노래 부르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그려보고 센터에 오지 못하는 혹은 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직접 가사 집을 목에 걸 수 있게 제작 후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였다. 대부분 아띠클라쎄를 길에서 혹은 아이들이 있는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실시하였다.



# Attī klase : Muzika(kiik) - Ivo



처음에는 접근법을 몰랐다. 축구장의 남자아이들에게 가면 이미 축구에 빠져있고, 카드 게임을 하던 여자 아이들에게 가면 카드 게임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으로 옆에서 이야기하며 끝끝내 노래를 불렀다. 두 명 정도 따라 하기 시작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따라 부르며 점점 관심도 보이더니 게임보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센터에 잘 오지 않는 남자아이들부터 마을 곳곳의 아이들 그리고 그 소리에 나온 마을 주민들까지 하나 같이 반겨 주고 노래를 불렀다.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재미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 또한 점점 마을의 아이들, 주민들이 쉬고 즐기는 핫 스팟들을 파악하는 장점이 덤으로 있었다.

# Atti klase : Muzika(Boot) - Ivo



4월에 보고서 내용 중에 내 음악 청소년 수업이 빠져 버렸다.(열심히 적었지만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것 같다.) 간단히 4월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리코더 수업을 진행하였고, 아이들은 6명 정도 참가를 하였다. 리코더는 이전 기수부터 진행하여서 하던 아이들은 정말 잘 하지만 처음 하는 아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실력차이가 많이 났다. 또한 리코더 물량이 부족하여서 6명 이후로 더 이상 아이들을 받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수업에 잘 못 따라오던 3명은 리코더를 가지는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랑하면서 다니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수업에 잘 따라오던 3명은 리코더 연주에 관심을 가지고 집에서 매번 연습도 해오면서 연주에 주력했다. 점점 청소년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리코더도 물량의 제한이 있고, 수준차이가 심해지기까지 하여서 아이들도 서서히 한달 사이에 지쳐 갔던 것 같다. 리코더를 5월 정도 까지 진행하고 원래 6월 부터는 댄스 수업으로 진행하려 하였는데 5월이 가기 전에 위기를 맞은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350PPM 관련 아이들과 연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내가 하고 싶어 졌다. 청소년 아이들과 수업에 애를 먹고 있던 나는 아이들에게 물어 보았다. 아이들 연극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5월 2번째 주를 기준으로 리코더 수업은 끝이 나고 6월 초까지 350PPM관련 연극을 진행하게 되었다. 내 개인적으로 새로운 수업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의미가 있었고, 미술 수업에도 350PPM을 진행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연극까지 진행하여서 청소년 아이들만큼은 350PPM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아 가기를 바랐다. 리코더 수업은 아무것도 없이 끝난 것 처럼 보여서 아쉽지만 리코더를 잘해야지 보다는 내 나름 음을 알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재미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내 스스로 의의를 두어서 오히려 편하게 수업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같다.

# Attī klase : Arte(kiik) - Beti

4월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다.

수업에 도통 집중을 못 하고 칭얼대는 몇 몇의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4~10세 아이들의 수준 차를 어떻게 극복하며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고민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몇 가지 시도는 해보고 있다.

우선 3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은 수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수업 참여를 막고, 4살부터는 참여는 하되 밑그림을 그리는 걸 도와주고 간단한 그림, 색칠만 스스로 하도록 지도한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3월에 미술 수업을 지켜본 결과, 칠판에 자잘한 그림을 잔뜩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그리도록 수업이 진행됐는데, 그 때문인지 아이들이 그림을 상당히 작게 그렸다. 나는 주로 하나의 주제로(닭과 병아리, 악어떼, 사람의 얼굴과 표정 등) 그림을 그리도록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림을 크게 그렸으면 하고, 그래서 매 시간 그림을 크게 그리도록 반복해 지도하고 있다. 아이들이 여전히 어려워하기는 하지만 밑그림 그리는 걸 조금만 도와주면 곧잘 그린다.

4월부터 꼭 아이들이 스스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스스로 완성할 때마다 칭찬을 했더니 아이들 중 몇 명은 눈에 띄게 그림을 잘 그리고, 자신감도 늘어 보기 좋다.



# Attī klase : Arte(kiik) - Beti

앞으로의 목표는 아이들이 그림을 크게 그리고, 색칠을 진하게 잘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나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은 위에서 말한 문제로 다양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내가 아이들의 그림을 모두 오려가는 등 부지런히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좀 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노력해 보려 한다.

한 차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하나하나 자르고, 큰 종이에 붙이고 꾸며 다시 아이들에게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그래서 아이들 참여가 적어 통제가 보다 쉬운 오전 수업 때, 색종이, 가위, 풀, 색연필을 사용하는 수업을 진행했고, 역시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다.



매 수업마다 “Kanbar boot diak(크게 그리는 게 좋다)” “Tenki kanbare boot(꼭 크게 그려야 한다)” 말했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그림을 크게 그리고, 내 도움 없이도 크게 잘 그리게 된 아이들이 여럿 있다. 맨 왼쪽 작품은 닭과 병아리를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 지도한 대로 잘 그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 흐뭇하다. 6월엔 “Pinta makas diak(진하게 잘 색칠하는 게 좋다)” 을 반복해 이야기할 생각이다.



# Atti klase : Arte(Boot) - Beti

Boot 아이들과의 수업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여태 하루도 빠짐 없이 매 수업마다 적게는 4명, 많게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어 아이들이 없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

같은 아이들이 매 수업마다 반복해 참여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내가 어느 정도의 떼뚱어를 구사하는지 아이들이 잘 알기 때문에 소통도 잘 되고 있다.

4월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4월엔 개인 수업만 진행을 했고, 5월엔 그룹 수업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여태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 10여 명이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지는 않아 처음엔 그룹 수업을 진행해도 관찮을지 고민이 있었는데, 진행을 해보니 일단 그룹이 된 아이들끼리 대화가 늘고, 다른 그룹을 의식하며 심하지 않은 수준으로 서로 더 잘하기 위해 경쟁을 해서 개인 수업을 진행할 때보다 좋은 작품을 완성한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앞으로 그룹 수업을 몇 차례 더 진행하려 한다.



# Atti klase : Arte(Boot) - Beti

만들기 수업은 두 차례 진행했는데, 편지지와 책갈피를 만들었다. 편지지의 경우, 아이들이 편지지가 무엇인지 알기는 하지만 티모르엔 그림이 그려진 예쁜 편지지가 없는지 처음엔 아이들이 무엇을 만드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완성을 하긴 했지만 반응이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책갈피는 처음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예시를 보여주자마자 좋다며 소리를 지를 정도였고,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책갈피로 하나는 가방에 거는 고리나 목걸이로 만들어 사용하고 싶다며 신나 있어 앞으로 한 차례 더 같은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6월, 7월엔 만들기 수업을 좀 더 많이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수업 중 한국 물품이나 값이 조금이라도 비싼 물품, 재료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값이 얼마든 간에 아이들이 내가 가져가는 물품,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값이 비싸 아이들이 구입할 수 없는 것은 한국에서 준비해 온 것일지라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센터에 이미 있는 파스텔, 물감, 아크릴 물감 등은 한국 물품이긴 하지만 다음 기수가 없어 내가 사용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려 한다.



맨 오른쪽 작품은 그룸을 만들어 진행한 350PPM 미술 수업의 작품이다.  
소외되는 아이가 생길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아이들의 반응과 참여가 좋다.

# Attī klase : Atividade(kiik) - Dino



작은 아이들의 수업은 현재 점차 참여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다. 오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점점 오려 하지 않는다. 4월에 생각한 것과 같이 콘텐츠가 많이 없다. 계속해서 했던 수업을 반복하고 있어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4월보다 아이들 통제가 어려웠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유독 내 수업만 되면 시끄러워지고 통제가 안되는 아이들은 옆 교실 수업까지 영향을 끼쳤다.

6월에는 아이들의 통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한다. 수업의 콘텐츠 또한 팀원들이 추천해주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볼 생각이다.



# Atti Klase : Atividade(Boot) - Dino



현재 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몸 놀이 수업은 이 전달과 비슷하게 유지해오고 있다. 꾸준히 오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고 이번 달은 남자 아이들도 같이 한 수업이 저번 달보다 많았음에 만족한다.

하지만 새로운 수업을 시도한 횟수가 적었으며 아이들도 기존에 했던 수업들을 선호해서 새로운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수업은 오는 인원이 계속해서 온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



# Attī klase : Ingles(kiik) - Lisa



Ingles kiik 시간은 아이들이 적은 오전에는 그림 카드, 알파벳 카드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기초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오후에는 학습지 형태로 수업을 하되 점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을 늘려가며 수업을 하고 있다. 영어 수업에는 남자 아이들도 자주 참여하고 있고, 또 대부분 수업 분위기가 좋아 현재 kiik 수업은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얀띠, 따시아 등 유달리 영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팬들이 있어 매 수업이 아주 행복하다.



# Attī klase : Ingles(Boot) - Lisa



큰 아이들 영어 수업은 3주 동안 했던 캠페인 준비와, 공휴일이 겹쳐 5월 4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수업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학교 수업이 오후로 옮겨지면서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에만 올 수 있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사정이 생겼던 것이다.

아이들이 오지 않는 월요일 오후에는 금요일에 오지 못했던 조벤의 영어 수업을 하거나, 혹은 월요일 오후에도 오고 싶어 하는 조벤을 위한 보충수업을 했다.

실제 영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또 듣고 싶어하는 대상들이 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5월 한 달 거의 수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다음 달에는 수업 시간을 빌리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아이들에게 밀린 영어 수업을 하고 싶다.



# Lulun Suratahan : Kiik & Boot(Beti, Dino)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들어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접기 수업. 그 때문인지 **금요일 오전, 오후**만 되면 종이접기를 하려고 온 아이들도 가득하다.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에 1시간만 가르쳐도 녹다운이지만 아이들이 종이접기와 그림 그리기를 마치고 완성한 것을 보면 힘든 것은 눈 녹듯 사라지고 **아이들의 수준**에 놀란다.

몇 아이들이 금요일만 되면 **평소에 안데려오는 동생들**까지 데려온다.(아마 종이접기를 2번하기 위해서 인것 같다.) 다른 수업은 몰라도 이제 **종이접기 수업시간**은 정확히 아는 아이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 탓에 **물품관리**(풀, 가위, 연필 등)는 쉽지 않다. 색종이 또한 빠르게 줄고 있어 수업에 고민을 더하고 있는 부분 이긴 하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인 만큼 Beti와 Dino도 열과 성을 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Lulun Suratahan : Kiik & Boot (Betî, Dîno)





## • Dadeer klase(오전 수업) - Mestri(선생님) : Ivo

### - 친근한 매력이 있는 Maun Ivo의 오전 수업!

현재 청년 영어 수업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우연히도 이보의 오전 수업에는 **남학생들만** 오고 있다.

수업 연령층은 비교적 높은 18세~22세. 오전 수업의 학생들은 주로 이보와 원래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거나**, 우리가 붙여놓은 영어 수업 **홍보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첫 학생들은 이보와 매우 친한 오벳(이보의 전용 미용사. 자주 가위와 빗을 빌려감.)과 그의 친구 아손, 티토였다. 특히 아손은 근처 학원에서 영어를 배운 실력자라 이보의 영어 수업을 한층 매끄럽게 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델타 지역(테라산타와 차로 10분거리)에서 와주는 성실한 청년들이다. 한국어, 영어에 관심이 많은 이 청년들은 매 수업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다.

이보의 수업 시간은 **농담과 편한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가 특징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보의 친밀도도 높는데, 벌써 학생들과 번호까지 교환 하기에 이르렀다.

평균 학생 수는 3,4명 정도. 오전이라 절대 수는 적지만, 영어 학습 성취도도 높고, 성실한 학생들이라 꾸준한 수업이 기대된다. 수업의 주 내용은 기본 회화이다.



# Joven klase : Ingles(Ivo, Lisa)



## • Loraik klase(오후 수업) - Mestra(선생님) : Lisa

- 매 수업 열정적인 강의를 펼치는 Bin Lisa의 오후 수업!

오후의 수업은 주로 **14세~15세**의 여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재 수강 인원은 **평균 5명** 정도이며, 수업 참여자는 주로 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형제이거나 마을에서 홍보를 보고 찾아온 테라산타 여학생들이다.

가장 꾸준히 참여해주고 있는 사람은 아리따의 언니 조르지나(청년 수업의 유일한 1주차 수강자)와 그의 친구 에스티이다. 이 둘은 청년 영어 수업뿐 만 아니라 평일에 하는 큰 아이들의 영어 수업에까지 참여하는 등 매우 열심히 센터를 찾아주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을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듣고 센터로 찾아온 베티와 친구들, 안젤(마나 우디스의 조카)과 친구들 등이 오후 수업의 주 멤버들이다.

오후 수업의 주된 내용은 **회화와 발음** 공부이다. 영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영어 발음부터 하나 하나 가르치고 있다.

단, 공부 외에도 다른 것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점차 **팝송**을 비롯해 다양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필기파인 여학생들의 특징에 따라 오후 수업에는 진지하고 **학구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점차 음악 등을 도입함으로써 편한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월 한 달간 학생들이 자주 바뀌고 참여 인원 수가 들쭉날쭉 했던 오후 수업은 이제 매우 **안정적으로** 열리고 있다.



# Lisa nia Tinan! (with lega!)



5월에 생일을 맞이하게 된 Lisa!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여 Lisa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점심부터 Ivo가 'Lisa 오늘 물 많이 먹겠네' 장난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비가티를 시작으로 아이들이 하나 둘 Lisa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결국 Lisa뿐만 아니라 참여한 아이들을 비롯 우리 모두다 온몸이 물로 젖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께 꽤나 혼나고 돌아오는 길이 막막해지기도 했지만(결국 안토니오 총장님이 태워다 주셨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물놀이 하는 것 처럼 다 같이 즐겁게 한바탕 뛰놀았던 시간이 되었다.



## 5월의 유행 : 빠빠가용



5월 초반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하나, 둘 캔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캔에는 실이 감아져 있었고 실 끝에는 한국의 가오리연과 비슷한 모양의 무언가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불어나더니 이내 테라산타 남자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빠빠가용을 들고 뛰놀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두 개와 비닐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빠빠가용은 테라산타 어디를 가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인기가 수그러들었는지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한 때 수업에 들어와도 연 만들기에 집중하는 남자 아이들은 이렇게 저렇게 관심을 끌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 5월의 유행 : 블록 놀이



Lisa의 영어수업(Kiik)에 참여할 수 없는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블록 놀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으나 입 소문을 탔는지 마을 이곳 저곳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시작했기에 초반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았으나 점차 큰 남자아이들이 자리를 차지하더니 남자아이들 세상이 돼버렸다.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블록놀이를 못하는 것이 아쉬웠는지 아이들은 블록을 한 두 개씩 훔쳐가기 시작했고 블록의 개수는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결국 우디스 간사님이 이제 블록놀이는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말씀 하셨다.

블록으로 멋지게 비행기와 성을 만들던 아이들. 하지만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앞으로 블록놀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5월의 유행 : 본드 풍선

가장 최근까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본드 풍선. 우리가 어렸을 적 문방구에서 보던 것과 같다. 하는 방식도 똑같고 가지고 노는 것도 비슷하다.

다만 아이들이 빨대에 본드를 묻히지 않고 입에 넣는 경우도 자주 있다. 본드를 빨대에 바르고 입에 넣어 우물우물 하는데 실수로 삼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든다. 본드를 이용하는 놀이이다 보니 위험성이 많이 커서 아이들이 자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 번째! 빨대 끝에 본드를 바르고 풍선을 크게 부는다.



두 번째! 풍선을 손으로 구멍을 막아주면서 빨대에서 떼낸다.



세 번째! 커다래진 풍선을 통통 튀기면서 논다.

# 5월의 유행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인기는 5월에도 계속 된다!!!



# 한돈의 카오스 : 형제의 난

**Martinu hadomi Arita ♥**



첫사랑: 아리따 (10살)  
예브고 착함, 소외된 친구  
를 잘 챙겨줌. 평소엔 어디  
들에게 애정을 퍼부어주는  
정 많은 성격.

구애자: 마르피누 (13살)  
장난기가 많으며 수업 말  
해자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의 수업 방해는 다분히  
고의적이었으나...  
"Hau hadomi Arita"  
(나는 아리따를 사랑해)

"Hau la gosta martinu"  
(나는 마르피누를 싫어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마르피누(개구쟁이, 마르페 형)가 뜬금없이 수업에 들어와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원래 우리의 수업에 거의 관심이 없던 마르피누가 왜 이렇게 자주 수업에 참여하는 것인가?'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마르피누가 들어오는 수업에는 늘 아리따(예쁨, 착함)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추측이 사실이 맞는지 의심하고 있을 때, 이브는 마르피누가 아리따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주변의 증언을 통해 (아조, 8세) 알아냈다.  
그 후 우리가 직접 관찰한 것에 의하면, 마르피누는 아리따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구애 방법은 주로 괴롭히기. 덕분에 아리따는 마르피누의 짓궂은 장난에 자주 울음을 터트린다. 마르피누의 서툰 구애 방식은 아직 아리따에게 잘 먹히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심지어 아리따는 어느 날 그 둘을 지켜보던 베티에게 "Hau la gosta martinu(나는 마르피누를 싫어해)"라고 선언까지 해버린 상태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브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안타까워했다.  
지금 지켜보는 이들의 의견으로는 마르피누의 첫 사랑은 험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 판하면서 귀여운 마르피누의 서툰 애정 공세는 아마도 우리가 티모르에 있는 동안 계속 되지 않을까...

지난 달 말.. 우리는 마르피누가 아리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주변인들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후 계속해서 마르피누를 관찰했다.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아리따 주변에는 항상 마르피누가 존재하고 있었다.



역전히 먼 아리따와 마르피누의 거리

지난 호에서 다룬 마르피누와 아리따



사건의 중심, 아리따

그렇게 마르피누의 아리따를 향한 안타까운 짝사랑이 지속되는 가 싶었던 찰나 새로운 제보를 접하게 된다. 마르피누의 최측근 아메우에게서 어떤 아이가 아리따의 Doven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리따의 Doven.. 그는 바로..



아리따의 Doven. 그는 과연 누구인가.



# 혼동의 카오스 : 형제의 난



아리따의 사랑. 마테우스

마테우스였다. (마르피누의 친동생!!) 가장 최근 소식에 의하면 아리따가 마테우스와 늦은 밤까지 같이 놀다가 아리따 아빠에게 적발되면서 현재 아리따는 아빠에게 외출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아피 클라세도 못 오고 있다.) 마테우스와 아리따는 비밀스러운 사랑 감정을 키워가고 있는데 마르피누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을 모르는 듯한 마르피누.

앞으로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 인가!! 정말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것인가, 한 명이 포기할 것인가.. Terra-Santa 연애의 화두 아리따와 마테우스, 마르피누 형제들 6월에도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 같다.



요즘 자주 붙어있는 마테우스와 아리따



아리따를 의식해 수업에 집중하는 마테우스.



아리따가 신이 났다

5월을 무난하게 시작하면서 4월의 청소년 아이들이 많아지고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5월의 마지막에 와서 아이들을 보니 3명 정도가 기존의 아이들과 싸우면서 나가게 되었고, 1주일 뒤에 3명의 아이가 다시 나가서 원래 10명이 넘게 있었지만 이제 5명 정도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다. 청소년 아이들 중에 한 친구가 유독 애들에게 시비도 걸고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한 폭탄 느낌이었다. 특히 언니들과 잘 지내고 2주 정도 매번 웃으면서 참여했던 친구 한 명이 갑작스럽게 그 친구 때문에 안 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연쇄 작용으로 떠나간 것 같다. 지금 시한 폭탄 친구가 우리에게 비치면서 떠나간 상태이다. 매번 싸우면서도 때로는 자기들끼리 우리에게 사랑 받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다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못 보게 되는 것 같다. 길에서는 만나면서 즐겁게 인사도 하고, 센터로 오고 싶어하는 눈치지만 다른 아이들이 있어서 오지 않고 집으로 가버린다. 한달 사이에 정이라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같이 와서 통제도 힘들고 몸도 피곤하게 매번 매달리곤 했던 4월과 5월 초가 그리워 지기도 한 것 같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은 4월부터 우리수업에 참가도 하면서 지내면서 우리에게 잘 대해주고 말도 잘 듣고, 아이들이 다투거나 화내면 나서서 풀어주면서 정말 기특한 아이들이다. 수업으로 치면 모범생들이 많이 남아있는 느낌이다. 수업 진행에 좋고 이 아이들과 정말 행복하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 사실 길에서 만나면 매번 인사하고 즐겁게 이야기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6월에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센터에 올 수도 있다. 또한 원래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우고 며칠 말 하지 않다가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화해도 하고 말도 하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도 현 상황에 만족하면서도 6월 넘어서 아이들끼리 화해가 되어지고 다시금 통제도 힘들고 몸도 많이 지치지만 북적거리는 청소년 수업이 되기를 바란다.



4월과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청소년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로 채워지면서 참가가 뜸해졌던 이전 기수부터 쪽 활동해오던 친구들이 조금씩 센터로 오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학교에 가면서 오지 못하다가 오후에는 오기 시작했고 나와 같이 드라마를 하나 맡으면서 매일매일 센터로 오기 시작했다. 3월에 그리고 이전 기수부터 참가를 했던 친구들이라 우리가 이야기 해주지 않아도 우리의 규칙, 생활 모든 면에서 예쁘고 기분 좋게 행동하였다. 또한 우디스 간사님도 매 기수 보았고 같이 많이 해봐서 우리에게 맡은 하지 않지만 농담도 하고 정말 웃으면서 센터의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4월에 소홀했던 점도 있었고, 새로운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와서 다른 친구들이 권력에서 밀려서 오지 않았던 점도 있었지만, 5월에는 확실히 오전과 오후에 오는 친구들이 달라지면서 틀이 다시금 잡혀가는 느낌이다. 청소년 아이들이 센터의 권력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마지막 기수가 된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14기가 왔을 때 이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14기가 왔을 때 이 친구들이 우리 때처럼 권력을 잡고 생활하고 있을까? 새로운 친구들이 또 오면 누가 센터의 권력을 잡고 있을까? 매번 센터 물건을 탐하고 훔쳐가기만 하는데 14기는 어떻게 대처할까? 등등이 참 궁금해 지면서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물음들은 쓸데없는 걱정이 되었고, 여기의 아이들과 13기 라운 아띠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 졌다. 처음에 센터에 많은 친구들이 오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없어지는 물건도 많아졌다. 센터의 여건과 환경은 좁고 제한적인 많은 일들을 겪고 나면서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5월에 예전부터 오던 친구들이 오면서 우디스 간사님도 그 친구들과 있을 때는 조금 더 편하고 웃으며 농담도 잘하고, 이전부터 오던 어린이들에 대해 특징 행동 등도 조금 더 알아서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편하신 것 같다. 내가 정한 것은 지금의 아이들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친해진 새로운 친구들도 챙기면서 이전의 생활하던 친구들 또한 챙기는 것이다.



라온아띠를 하면서 센터의 큰 문제는 2가지 이다. 아띠클라쎄를 제외하면 거의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마지막 기수이고 떠난다면 정말 센터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운영될까라는 생각도 가끔 주저넘게 해본다. 그러면서 라온아띠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하지만 반대로 두 번째 문제는 센터의 재산, 자산 등을 마을의 주민, 학생, 어린이 모두 탐내고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슬쩍슬쩍 다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몸 속에 숨겨가고 아무도 없을 때 훔쳐가면 우리는 알면서도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라온아띠가 오면서 한국적인 물건들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져가는 것인지, 남의 물건은 잘 가져가지는 않는 것 같고, 센터에 대해 인식이 없어서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확신은 없다. 물론 내 생각에 두 개 다 해당이 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잘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다. 아이들이 가져가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혹은 어른들이 오히려 묵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라온아띠가 오면서, 한국적인 물품들이 넘쳐나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13기가 마무리 되고, 이곳에 오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센터와 우디스 간사님에게 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더 이상 외국인이 와서 한국적인 물건과 호기심 가득한 용품을 주지 않고 센터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기수이기에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과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생각과 라온아띠가 센터 활동에 와서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점점 확실해 지는 것 같다. 마지막 기수라는 것이 내 생각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기에 나는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놀다 와야겠다.



티모르에서 생활하면서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 중 하나는 어디까지를 이들의 문화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다.

국내훈련 때부터 예시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생각보다 불쾌하고 불편한 문제 한 가지는 시간에 관한 인식과 개념의 차이다.

우리가 티모르 곳곳을 둘러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신 전 총장님의 배려로 하루 오전 수업을 빼고 산타크루즈와 박물관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총장님께서 연락도 없이 한 시간 반 가량 늦으셨다. 한 시간 반이면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 있고,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인데, 특별히 미안해 하시는 기색도 없이 이렇게 늦으시니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물론 총장님이 좋은 분이란 걸 익히 들어왔고, 이런 배려는 정말 감사한 일하기에 금방 마음이 풀렸지만)

마운 제로(Y 축구 코치)와는 시간의 문제와 소통의 문제를 동시에 겪었다.

지난 4월, joven(청년) 영어 수업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청년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 마나 우디스께 어려움과 아쉬움을 토로했더니 마운 제로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다. 그런데 그 도움이란 것이 테라산타 청년과의 만남이 아니라 본인 성당 청년과의 만남이었고, 무려 그 날 약속에 1시간을 연락도 없이 늦으셨다.

마나 메리와도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겪었다.

3월엔 함께 돌아다니며 이보의 시계를 사려고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됐던 탓인지 한 번 구경하기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이번엔 독립기념일에 만나 국가 행사를 보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전화를 하니 아프다고 집에 있었고, 심지어 국가 행사는 이곳 딜리가 아니라 먼 지방에서 열리는 거였다.

티모르는 아직 아이들을 약자로 생각하지 않아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은데, 미끄러렛(미니 버스)을 타면 이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기사들은 안에 자리가 있든 없든 일단 차를 세우고 보는데, 사람이 탔는데 자리가 없다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눈치를 준다. 대놓고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도 봤다. 그럼 아이들은 일어나서 서서 가거나 배려심 있는 아주머니 무릎에 앉아서 가야 한다.

이런 모습은 센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마나 메리가 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

마나 메리가 Kiik(4~10세) 미술 수업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자리에 앉아 사춘 동생 이름으로 그림을 그려 제출하거나 피곤할 때면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어려서 그림을 그려본 일이 적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고, 대학 생활에 피곤한 날엔 센터에서 활기차게 활동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않는다. 특히 아이들이 많아 자리가 부족할 때면 아이들은 서있는데, 마나 메리는 의자와 책상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자리만 차지한 채 즐기고 있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겪는 이런 문제들이 문화의 차이인지, 개개인이 갖는 문제인지 확실하지 않고, 이것이 문화의 차이라면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우리는 5개월만 활동하고 가는 사람들이니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보다 솔직히 말하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일하는 파트너거나 상사라면 솔직히 이해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은 여전히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된 마음인 걸까?

3개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티모르의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의 부모들을 만나고, 거리에서 티모르 사람들과 마주치고 때로는 대화도 몇 마디 주고 받다 보니 확실히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던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이 얼마나 무심한 말인지, 그 말에 담긴 무정함과 무심함을 실감한다. 마르띠누나 마테우스, 레오나 캔디가 한국 어느 공장에서 적은 월급을 받고, 그다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일한다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중한 아이들을 그저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러나 한 편으로는 시간 개념의 부재, 일상에 만연한 폭력성, 아이에 대한 보호 의식과 배려의 부재,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까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보려는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티모르에서 라온아피 활동을 하니 이들을 좋게 봐야 한다는, 스스로 만든 강박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강박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티모르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것은 당연할 것도 같고) 이들이 평생을 배우고 자라온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티모르에 오면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다. 일단 지금은 이전엔 외국인 노동자라 생각하고 부르며 지나쳤던, 그저 어느 정도 동정만 표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오래, 깊게 생각하게 된 것으로, 이 정도로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들에 대한 생각을 접지 않도록 해야겠다. 마르띠누, 마테우스, 레오, 캔디를 생각하며.



여전히 수업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수업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Atividade 수업이 있는 날이라고 말을 하면 '그게 뭐하는 수업이야?'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한 달 반이면 수업이 자리를 잡고 고정되게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기에 충분한 시간인데 제자리를 돌고 있다. 물론 수업이 잘 되는 날도 있었고 자주 참여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아이들의 통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자와 여자 아이들 또한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유독 내 수업이면 아이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안되고 소리를 쳐도 되지 않고, 무시하고 수업을 해도 변함이 없었다. 지난 달과 비슷하게 내 수업을 해야 할 때면 센터에 가기가 아직까지 두렵다. 수업하는 게 힘에 많이 부칠 때가 많았고 진행하면서도 하기 싫은 티가 묻어 나오는지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다. 팀원들이 수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효과가 크게 있었다. 도움이 많이 되었던 수업이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6월 달에도 센터에서의 고민은 수업이 될 것 같다. 사실 내 스스로가 할 자신이 더 이상 없다. 수업 자체를 바꾸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수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렵다.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지 못했다. 저번 달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최고였다면 이번 달은 최악인 것 같다. 아띠클라세를 비롯해 활동 전면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고 그러다 보니 게을러지고 하기 싫었던 부분이 많았다. 아이들이 다가와도 피하거나 시뻐잡은 반응을 보인 경우가 빈번했고 내가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5월 중순 쯤에 팀원들과 이야기를 깊게 나누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이후에 크게 반성했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다. 팀원들이 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싶다.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6월은 어렵겠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다.



이번 달 나는 우연히도 Boot 수업(큰 아이들 수업)을 한 달간 쉬게 되었다. 휴일, 연극 수업 등등이 겹친데다가 아이들의 학교 시간이 오후로 변경되는 등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4월에 아띠 클라쎄를 시작했을 때는 수업 차수가 많은 것 같았는데, 5월이 끝나고 나니 이제 한 시간 한 시간이 아깝다. 마지막 라온아띠로서 어떤 수업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지 고민하게 된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 하나 알아가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활동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다는 조바심이 난다.

남은 아띠 클라쎄 시간은 이제 고작해야 6주 남짓이다. 나중에 아띠 클라쎄가 모두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매 수업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

반면, 청년 수업은 이제 조금 재미가 붙고 보람이 느껴진다. 다 같이 종이 접기만 하면 되던 금요일 일정이 청년 수업으로 바뀌고 나서는 사실 매주 금요일이 조금 힘들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청년 수업에 오는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겁다. 아마 그 학생들이 꾸준히 와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수업을 준비해갔다가 허무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 지난 몇 주간 금요일에 꼬박꼬박 와주는 이 친구들 덕분에 그런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되어 고맙다. 그리고 청년들은 수업 내용에 늘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준다. 아이들 수업 때는 어떻게 하면 집중을 시키지, 뭘 하면 산만하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수업을 계획할 수 있어 편하기도 하다. 또 이제는 수줍기만 하던 조르지나가 먼저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걸곤 한다. 수업을 통해 청년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조르지나를 보면 그런 처음의 기대가 어느 정도 실현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Ivo의 시도 덕분에 음악 수업도 하게 되었으니 이제 청년 수업은 점점 더 좋아지길 기대한다.





이번 달 센터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센터에 오는 여자 아이들의 편가르기가 자주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큰 아이들 수업을 많이 하지 못해서 현재 큰 아이들과는 교류가 많이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싸워서 어느 한 쪽이 오지 않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다. 가령, 센터에 막 오려고 하던 아젤리 아노나가 누구와 불화였는지 모르겠지만, 센터에서 편가르기를 해서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다. 길에서 우리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면서도 정작 센터에는 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좋았다.

잘 지내던 아이들이 갑자기 싸웠을 때, 심지어 다툼의 원인이 우리가 되기라도 하면 정말 미안하고 신경이 쓰인다. 여자 아이들이니까 편가르고, 무리를 형성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자주 아이들이 마음 상해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다음 달에는 정말, 평화로운 센터가 되기를 바란다.





Mingas

350 PPM campaign

# 350PPM 캠페인 : 준비 & 회의



나눔 후 진지하게 일할 때도!



나눔 후 웃으며 일할 때도!!



350PPM관련 미팅



청소년 350PPM 교육 자료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는 Ivo

매번 나눔이 끝나고 나면 10시가 넘고 11시가 되어가며 350PPM과 관련하여서 회의와 준비를 반복하였다.

첫 번째는 아띠클라씨 시작과 함께 미술 수업을 이용해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 관련하여 신문, 폐지, 이면지 등으로 진행하였다. 두 번째는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350PPM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어린이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연극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350PPM을 이 곳 현실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CO2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껴 쓰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 세 번째는 마을 사람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선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후에 세우려고 하였다.

주제와 문제에 대해 우디스 간사님, 총장님과 2가지 논점에 대해 상의하였다. 우리가 생각한 한 가지는 마을의 쓰레기 장과 쓰레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문제였다. 두 번째는 센터와 직결된 점으로 물을 사용하는 곳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매번 물이 넘치고 주변이 더러운 웅덩이들이 많았고, 아이들이 항상 그곳에서 놀아서 아프고 다치는 점이 있었다. 우디스 간사님도 쓰레기 문제와 쓰레기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것과 관련된 것을 했으면 하셨고, 마을로 마을의 쓰레기 관련 설문지로 설문을 시작하였다.

# 350PPM 캠페인 : 쓰레기장 Tibar 방문

5월 8일, 티모르 수도 딜리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인 티바에 방문했다. 재활용이란 개념이 없는 티모르에서는 모든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태우는데, 이것이 유일한 쓰레기 처리 방법이다. 티바 주변에는 돼지, 소와 같은 동물은 물론 사람들이 살고 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은 티바 바로 근처로 와 놀기도 한다.

우리가 숙소에서 자주 먹는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껍데기를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다. 라온 아띠로 티모르에 와 350PPM 캠페인도 진행하는데, 정작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티모르의 환경 오염에 손가락을 얹은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쓰레기 처리 방법이 오직 태우는 것뿐인 나라에서, 그걸 알면서도 우리도 매일 매일 생활 쓰레기를 만들면서 무슨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 350PPM 캠페인 : 테라산타의 현 상황

우리가 활동하는 테라산타의 상황 역시 좋지 않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포장되지 않은 흙 길은 비 내린 다음 날이면 물과 쓰레기로 엉망이 되고, 그런 곳에 돼지와 염소, 닭들이 살고, 거기서 맨 발의 아이들이 논다. 이렇게 오염될 수 밖에 없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도 있으니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진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작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 흔한 공장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는 하는지, 그게 당최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했고, 그러기를 원했다.



쓰레기 수거 직후 Lixu(마을 쓰레기장)의 모습.  
쓰레기 수거가 완전하지 않아 늘 주변이 지저분하다.



테라산타 마을 어딜가던 쓰레기들이 증비해 있다.



센터 앞에 수도가 나오는 곳.  
항상 쓰레기와 동물의 배설물로 지저분하다.

# 350PPM 캠페인 : 마을 설문조사

## 350PPM Perguntas

1. 당신의 집에 쓰레기 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필요하다 ②필요 없다

2. 당신의 집에 쓰레기 통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3.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나요?

- ①집에서 태운다  
②집 근처에 버린다  
③마을 쓰레기장에 버린다

4. 사람이 필요로 하는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나요?(Ex:캔, 알루미늄)

- ①그냥 버린다  
②한 번 더 사용한다  
③알루미늄과 캔을 판다  
④캔을 모으는 사람이 있으면 판다

5. 이 지역의 마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깨끗하다 ②깨끗하지 않다

6. 물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나요?

- ①식수를 산다  
②꺄련을 구입한다  
③집에서 물을 사용한다  
④이웃과 함께 사용한다

7. 마을 쓰레기 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좋다 ②더러워서 사용하기 싫다

8. 우리 마을의 쓰레기 관련 계획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하겠다 ②안하겠다

9. 마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쓰세요.

	1번	2번	3번	4번	합계	
질문 1	39	9			48	
질문 2	26	22			48	
질문 3	6	3	39		48	
질문 4	30	5	12	9	56	→복수 8명
질문 5	38	10			48	
질문 6	1	5	29	13	48	
질문 7	32	16			48	
질문 8	45	3			48	

## 9번 문항에 대한 주민들의 공통적인 대답

- 쓰레기 장에 버려야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것이다.
- 쓰레기 장 주변도 더럽고, 쓰레기를 길에 마구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더러워 지며 모기, 파리 등도 많고 사람들이 아플 수 있다.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이곳의 환경 그리고 쓰레기 장을 깨끗하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

(질문 5, 질문 7)

쓰레기 장에 대부분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질문 3)

쓰레기 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반 정도가 쓰레기 통이 있지 않다. (질문 1, 질문 2)



# 350PPM 캠페인 : Boot 수업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350PPM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CO2도 모르고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도 몰랐기에 정말 쉬운 버전으로 준비하였다. PPT도 우리가 직접 만들면서 CO2가 무엇인지? CO2가 많으면 지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CO2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과학적인 상식,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은 설명을 자세하고 쉽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20분 정도 분량의 수업을 진행 하였다.



확실히 이해하는 아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싶기도 하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돕기 위해서 OX 퀴즈로 마무리 하였다. 나는 아이들의 수업 때 반응을 보고 아이들이 다 아는 줄 알았지만 역시 10명 중 3명 정도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첫 수업에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수업을 하고 나니 아이들의 수준과 이해 정도를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뒤에 우리의 회심의 역작 “신 환경 게임”을 하면서 더욱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을 했다. 연극을 위해 환경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연극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한 설정이었다.



# 350PPM 캠페인 : 신 환경 게임

350PPM 수업을 하루 진행하게 되면서 수업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루해 할 것 같아서 게임도 같이 준비해갔다. 국내 훈련 기간 했던 신 무역게임을 이용하였다. (수업 준비 중에 Lisa의 제안에 준비가 척척 이루어졌다.) 게임의 내용은 제한된 종이를 주고, 가위질을 통해서 모자, 상의, 바지 등 물건들을 만든다. 그리고 매장에 판매 하면서 카운트를 하고 점수를 준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은 점수로 승리를 정하는 척 하지만 가위질을 하고 남은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쓰레기가 가장 적은 팀이 이기는 것이다.

이 게임의 주제 첫 번째는 가위질을 하는데 종이를 아끼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버린 쓰레기 중에서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종이, 즉 쓰레기로 인식해 버린 종이를 재활용 하여서 한 번 더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들기에 경쟁하면서 생기는 필수적인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게임의 핵심은 물품을 많이 생산한 팀이 이긴 줄 알았지만 그에 비례해 쓰레기를 많이 생산해 지는 팀이 되고 오히려 물품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팀이 쓰레기를 적게 생산해 이기는 게임이었다.)

아이들 수준이 비슷하기에 Lisa와 Beti가 참가하여서 최대한 많이 물건을 생산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기 게임 전에 미팅을 하였다. 드디어 당일 게임을 진행하였고, 우리가 생각한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많이 만든 팀은 좋아하고 적게 만든 팀은 우리에게 Beti와 Lisa가 없어서 진 것이라고 한탄했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며 쓰레기를 모았고, 쓰레기의 양을 확인했다. 여기서 더 반전은 제일 못 만든 팀이 쓰레기는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또한 쓰레기 양이 제일 적었던 팀이 결국 물품을 제일 많이 만든 팀으로 나왔다. 진행자 Ivo는 급 당황하면서 말문이 조금 막혔었다. 결과가 조금은 달라졌고, 설명할 내용도 조금은 달라졌다. 하지만 이내 쓰레기 중에서 큰 종이를 보여주고 사용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버린 것이라는 것과 쓰레기를 제일 조금 생산한 팀이 물건도 많이 생산했으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 350PPM 캠페인 : 신 환경 게임 그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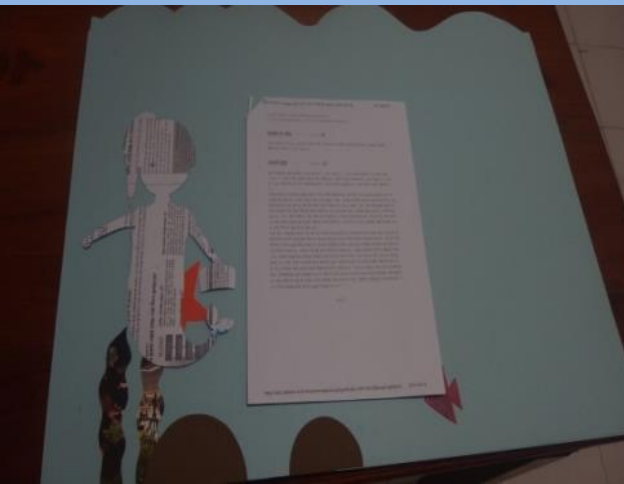
우울한 Neti를 달래주는 Beti



Ivo에게 삐쳐 등을 돌린 채 수업을 듣는 Rena

결론이 변하면서 반전은 없었고,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된 팀이 더욱더 확실하게 지게 되었고, 이긴 팀만 확실하게 이기는 결과를 가졌다. 게임에서 진 감수성 풍부한 중학생의 여자 아이들은 자신이 졌다면 너무 우울한 표정과 진행자인 Ivo를 일부로 안보며 수업을 마치게 되었다. 결국 수업 종료 후 일일이 안아주며 위로도 건네고 너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결과라고 위로를 건넸다. (국내 훈련 간 여수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감수성 풍부한 여중생들이라 더욱더 심했던 것 같다.)

우리는 준비 할 때 미술 수업을 진행한 Beti의 말에 의해 아이들이 종이를 자를 때 정말 못 자르고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업에 종이를 자를 때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잘랐고, 종이들을 정말 조금씩 사용하고 전부다 버리는 바람에 쓰레기가 많았고 오히려 많이 생산하면서 종이를 더 많이 써서 쓰레기가 덜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350PPM을 한 그 후 이어진 수업 시간에 나무가 타면 CO2가 많이 안 없어져서 지구가 아프다는 말을 하는 Neti와 미술 시간에 다 쓴 종이들을 버리려는데 자기가 한 번 더 사용하겠다고 집에 가져가려는 Sonia를 보면서 수업의 뿌듯함을 느끼게 됐다.

# 350PPM 캠페인 : Beti의 미술 수업

티모르에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티모르의 이런 현실을 알기 전부터 일회성 캠페인은 하고 싶지 않았고, 티모르에 와서는 아띠클라씨의 주인공이자 라온아띠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그 동안 진행된 캠페인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아예 모른다고 대답한 게 아쉬워 이번엔 꼭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학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렵고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을 한다. 잡지, 신문지, 과자 상자, 페트병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생각과 함께 물품이 귀한 이곳에서 새 종이나 물품 없이도 미술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이것이 초반에 생각한 수업 내용과 목표였다.



아이들이 처음엔 신문지, 이면지에 그림을 그리는 걸 낯설어하고 새 종이를 원했는데, 지금은 시키지 않아도 신문지, 이면지를 잘 사용하고, 새 종이가 있어도 이면지를 사용할 때도 있어 기특하다.

# 350PPM 캠페인 : Beti의 미술 수업

티모르엔 재활용이란 개념이 없다. 알루미늄을 모아 팔 수 있지만 큰 돈이 되지는 않고, 그 외 모든 쓰레기는 그저 불로 태울 뿐이니 수업 초반 재활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설명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적어도 주에 한 차례는 재활용 수업을 진행했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 매번,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걸 그냥 버리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수업에서 사용하고 싶어 가져왔고,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굳이 신문이나 이면지를 사용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신들이 찾아서 사용하니 기분 좋을 따름이다.

소니아의 경우, Ivo의 환경 수업과 나의 미술 수업을 거듭해 들은 후, 매번 수업 후 남은 종이 조각들을 모두 모아 재활용한다고 집에 가져가니 현재까지의 교육 효과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쓰레기를 적게 만들기 위해 재료의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흐뭇하지 않을 수 없다.



이면지엔 원송이를, 신문지에 나무를 그렸다.

바탕이 된 흰 종이는 2015년 달력이 다. 벌써 5월이 끝나가는데, 사무실에 남은 달력이 많아 미술 수업, 포스터 만들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350PPM 캠페인 : Beti의 미술 수업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Boot(11세 이상)의 경우, 거의 매주 한 차례 350PPM 미술 수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주로 신문지, 잡지를 활용해 그림을 그리고 오려서 붙이는 것으로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

문패, 연필꽂이, 열쇠고리 등을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재료를 홀로 구해야 하니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통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니 한 번에 재료를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칼, 본드 등의 재료도 센터에 넉넉히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쪼개거나 사비로 구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준비 중에 있으니 6월부터는 만들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과자 상자와 색종이를 활용해 책갈피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았다. 가방에 걸고 다니겠단 아이도 있고, 목걸이로 걸고 다니겠다는 아이도 있어 비슷한 수업을 한 두 차례 더 진행할 생각이고, 이런 반응을 보니 필히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350PPM 캠페인 : Beti의 미술 수업

Kiik(4~10세)의 경우, 제한이 더 많다. 4~10세로 연령차가 크니 어린 아이들의 경우, 가위와 칼의 사용이 위험할 수 있고, 물품을 조심성 없이 사용해 금방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환경, 재활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두 차례만 350PPM 미술 수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350PPM 연극을 보고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그때부터 350PPM 미술 수업을 몇 차례 더 진행해보려 한다.



Kiik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내가 모두 자르고, Boot 아이들이 이를 붙이고, 신문지를 활용해 나무, 꽃, 과일 등을 만들어 작품을 완성했다.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완성된 작품을 본 Kiik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서 Kiik 아이들라도 350PPM 미술 수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른쪽은 그래서 진행하게 된 두 번째 350PPM 미술 수업 작품이다. 쓰레기, 동물의 오물이 있는 더러운 물에 사는 개구리는 아프고, 깨끗한 물에 사는 개구리는 행복하다는 게 주제였는데, 아이들이 제법 이해를 잘 하고, 수업 내용을 잘 따라왔다. 완성작도 좋다.

# 350PPM 캠페인 : 미술 작품 전시

5월 30일 토요일

교실 벽면에 아이들 작품을 붙이고 나니 생각보다 그 모습이 더 예뻐다.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와서 연극과 함께 구경을 하고, 아이들이 센터에서 매일 무엇을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350PPM 캠페인인 만큼 환경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아이들이 종종 집안 일을 하거나 동생을 돌봐야 해서 센터에 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와서 이런 걸 본다면 센터에 가는 시간 만큼은 일을 시키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다.

아이들은 50명 가량이 왔고, 청년과 어른은 10명 정도 왔다.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의 경우, 전시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시된 그림 중 자기가 그린 게 얼마나 있는지 세보는 재미는 확실히 느낀 것 같다. 그 동안 수업에 자주 빠졌던 아이들은 자기 그림이 별로 없다며 서운해했고, 6월과 7월 매 수업마다 참여하면 그림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자 그러겠다고 답했다. 환경에 관한 메시지는 전시보다 연극이 확실했던 것 같지만 수업 참여에 대한 의지와 동기 정도는 심어준 것 같다.

마음 같아선 전시를 계속 해두고 싶었는데, 우리 생각도 그렇고 마나 우디스 생각도 아이들이 작품을 훼손하거나 몰래 가져갈 것 같아 하루만 전시를 하고 모두 수거해야 했다.

또 Boot 아이들이 전시보다 8월에 작품들을 모아 작품집(책처럼)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기대하고 있기도 했다. 작품집을 만들 때 환경에 대한 페이지를 추가하고, 350PPM 미술 수업 작품끼리 모아서 주면 아이들이 보다 오래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 350PPM 캠페인 : 연극과 IV의 감정선

1

350PPM 교육 직후  
2개의 연극을 준비  
열정적 참여  
(연극 2주 전)

3

Lily Alucy Atina Angel 합류  
2개의 연극을  
다시 연습  
(연극 4일 전)

5

우여 곡절 끝 연습 참가  
산만했지만 연습하는 것을  
보고 안심 함  
(연극 1일 전)

7

우디스 간사님 도착 후  
인원을 추려 급하게 연습  
2개의 연극 마무리 함  
(연극 시작 )

2

아이들의 다툼, 삐침으로  
총 인원 4명이 남게 됨  
1개의 연극 연습  
(연극 1주 전)

4

새로 합류한 팀 전원이  
연극을 안한다고 함  
결국 설득 끝에 참가함  
(연극 2일 전)

6

Atina Fero Abuk  
연극 불참  
2개의 연극 모두 불가  
(연극 1시간 전)

감정 기준선



# 350PPM 캠페인 : 연극

1



많은 인원 참가! 열정적인 시작!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교육을 듣고 참가를 하고 싶어 했다. 또한 모두 연극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결국 내가 연극을 2개를 준비하고 2개를 하기로 결정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주 정도였고, 6번의 수업을 진행하고 무대에 서기로 하였다. 기획부터 대사와 대본을 작성하면서 같이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모두 하려고 하였고 열정도 넘쳤던 시기였다. 어떡하면 아이들과 내가 재미있는 연극을 하고 어린이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야기 하면서 즐겁게 보냈다.

2



결국 남은 4명..... 하지만 그들은 착한 모범생!!

하지만 중간중간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빠치고 하면서 결국 인원은 사진과 같이 4명이 남았다.(처음에 3명이 안 나오고 다시 3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연극을 2개를 준비하고 시작하였지만 결국 하나의 연극을 채택하고 다 같이 연습을 하기로 하였다. 교육 받은 인원이 모두 참가하고 청소년 아이들과 재미있게 하고 싶었지만 결국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었다.

350PPM 연극을 실행할 처음 생각에 청소년 아이들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환경과 지구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랐지만 인원이 줄어들어 많은 아이들에게 퍼지지 못한 점은 아쉽게 되었다. 하지만 남은 4명의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매일매일 참여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사소한 것도 알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즐겁게 준비기도 했다. 이 친구들은 교육부터 연극 연습까지 2주간 매일매일 활동하였기 때문에 연극실력과 하는 행동들까지 전부 마음에 들었다.(우디스 간사님의 감탄!)

# 350PPM 캠페인 : 연극



350PPM 연극 수업 시작 행복 했던 Ivo!!

처음 연극을 2개 하기로 하고 하나가 인원이 없어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Atina와 Afero가 와서 자기들이 연극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한 동안 다른 청소년 아이들이 많아서 센터에 오지 않았는데 오후에 그 아이들이 안 오는 틈을 타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4일 정도밖에 연습할 시간이 없었지만 나는 흔쾌히 그들에게 연극을 하자고 하였고, 인원도 빨리 모아서 다음날 바로 대본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전 기수들이 본다면 반가워할 얼굴들이다. 3월에도 같이 와서 놓고 이전 기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모두 이전 기수 연극도 해보았기에 믿고 진행하였다. 이 친구들과과는 350PPM 관련 교육은 하지 못했어도 이미 8기부터 쪽 해왔던 것 같아서 교육보다는 연극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2개의 연극을 각자 다른 청소년들과 다른 개성을 담아서 한다는 생각에 다시금 기분이 들떴다.



우여곡절 끝 수업과 멘탈 나간 Ivo

연극을 토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연극을 하기로 한 날 2일 전에 아이들이 오더니 연극을 할 수 없고, 나중에 연극하자고 이야기 하였다.(모든 연극을 끝낸 후 생각해보니 주동자는 Atina였던 것 같다.) 우디스 간사님 말로는 저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사람을 바꾸어서 아띠들이 참가를 하고 연극을 하라고 하였다. 2일 전에 급하게 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다시 준비할 여유가 있지도 않았다. 또한 평소와 같지 않게 연극 350PPM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다른 핑계로 하지 않은 것이라 우리도 화가 났다.

결국 한 시간 정도 실랑이 끝에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연습을 시작하였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아이들끼리 장난치고 놀고 연극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 같지 않았다. 앞의 팀 아이들처럼 350PPM 교육을 안 받아서 연극을 하는 이유와 의의를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앞의 팀과 비교를 하게 되었다. (앞의 팀은 정말 매일매일 노력하고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 였기에 더욱더 심했던 것 같다.) 우리도 큰 욕심으로 완벽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도 않았고 시간이 부족해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대사와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았고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느낌이 아니어서 힘들고 지쳤던 것 같다.

# 350PPM 캠페인 : 연극

5



다시 열심히 연습 중인 Atina, Aluci, Lily!!

연극 시작 하루 전날 다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기대감이 낮아 졌던 것인지 전날 이라 우리가 스스로 체념한 것인지 아이들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연습도 하자고 하면서 대본도 Atina 빼고는 전부 다 숙지를 하였다. 속으로 우리가 너무 이 친구들에게 기대감이 높아서 그랬던 것 같고 한 번 겪으면서 기대감이 낮아졌다. 그로 인해서 확실히 연습하는 내내 다시 연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전 날만 해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 팀이 연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다.)

이 팀은 힘든 점이 보여서 우디스 간사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연극에서 필요한 역할을 대신 소화해 주시기도 때로는 의사소통 면에서 더욱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갈 수 있었다. 연극의 마지막 연습을 끝내고 2주간의 스펙타클한 연습과 과정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Neti, Osi, Sonia Abuk의 실제 연극으로도 손색없는 연극과 Atina와 함께우여 곡절은 겪고 힘들었지만 함께 즐겼던 연극을 마무리 하는 단계였다.

6



오지 않은 Afero, Atina, Leo  
대신한 Dino, Beti, mana Udys



오지 않은 Abuk  
대신한 Naria

오기로 한 친구들이 연극을 시작하기로 한 3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다. 2개의 연극 모두 하지 못하게 되었고, 3시에 시작한다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늘 하지 못할 것 같았고, 오늘 찾아온 많은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같이 연극을 준비한 착실한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3시에 중요한 미팅이 끝난 우디스 간사님이 오시고 급하게 Naria, Dino, Beti의 도움을 받아서 30분 만에 연습을 거친 후에 그 친구들은 대본을 보면서 읽고 연극을 진행하게 되었다. 잘될까라는 의구심과 연극 당일 주인공 역할을 맡고, 조연을 맡은 친구들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연극을 하면서 아니 3개월 생활하면서 제일 낙심하고 실망 했던 것 같다.

# 350PPM 캠페인 : 연극



예상보다 30분 늦게 시작된 연극, 하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작된 첫 번째 연극과 두 번째 연극 다행히 모두 무사히 마쳤고, Lisa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과 함께 구경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연극이 멋있다고 귀속말을 해줬다고 한다. 또한 Xefi와 Udys 간사님의 흐뭇한 미소까지 볼 수 있었다. 제일 좋았던 점은 연극을 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었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딱딱한 주제의 연극이지만 잘 봐주고 반응도 뜨겁게 해주었다. 어쩔 수 없이 30분 전 통보로 역할을 맡은 우디스 간사님, Dino, Beti, 엄청나게 시끄럽고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혼자 30분 동안 통제하느라 고생했던 Lisa까지 모두 고맙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역할과 연기재능을 발견한 잘하는 Sonia, 똑똑하고 똑 부러지게 연습했던 Neti, 뒤늦게 우리와 친해졌지만 완벽히 역할을 수행한 Osi, 마지막에 합류해 30분 연습 후 실전에 들어간 Naria, 매번 연습 때 제일 먼저 하자고 하는 Alucy, 당일 급하게 배역을 바꾸었지만 완벽히 소화한 Angel, 열심히 그리고 연극을 잘하던 Lily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해주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 (연극에 Mingas, Berta, Lita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전 라온 아피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숙소 생활

# 숙소에서 350PPM

우리는 멀리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350PPM 캠페인을 하기 위해 매주 미트리스데이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었다. 5월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생활 규칙을 좀 더 강화하기로 했다.

## • 매주 화요일 : 에어컨 리스 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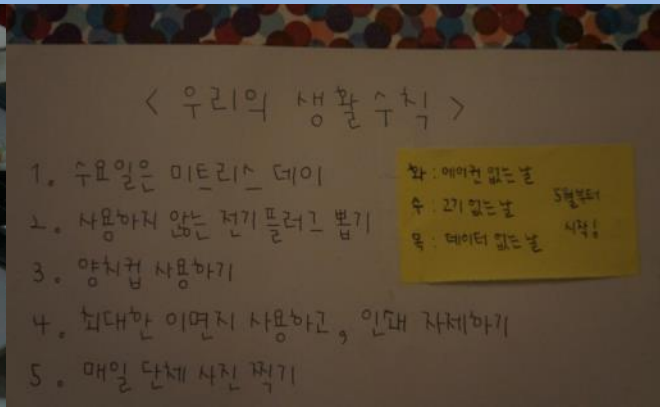
티모르에서는 전기를 선불제로 사서 사용한다. 그 때문에 숙소 생활에서 우리는 매주 직접 얼마나 전기를 사용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었는데, 두 달 간 생활해본 결과 전기 사용이 다달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는 전기 절약을 실천하기로 했다. 우리는 매일 켜놓는 에어컨이 전기를 제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에어컨을 켜지 않는 에어컨 리스 데이를하기로 했다.

## • 매주 수요일 : 미트 리스 데이

우리의 미트 리스 데이는 그 기간이 오래된 만큼 점차 요령껏 잘 수행되어지고 있다. 같이 생활하시는 클라라 간사님은 너네 오히려 수요일마다 더 잘 먹는 거 아니냐, 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미트 리스 데이 때문에 요리에 신경을 쓰게 되는 수요일. 우리는 매주 수요일 마다 고기 없는 식사를 해오고 있다.

## • 매주 목요일 : 데이터 리스 데이

데이터 리스 데이를 정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반성이었다. 우리는 매달 점점 증가하는 데이터 사용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아피 클라쎄를 시작하며 수업 준비를 해야 했던 탓도 있겠지만, 그저 인터넷을 보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 사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에 우리는 매주 목요일,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리스 데이를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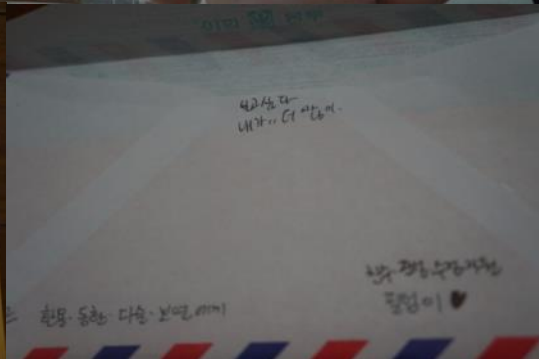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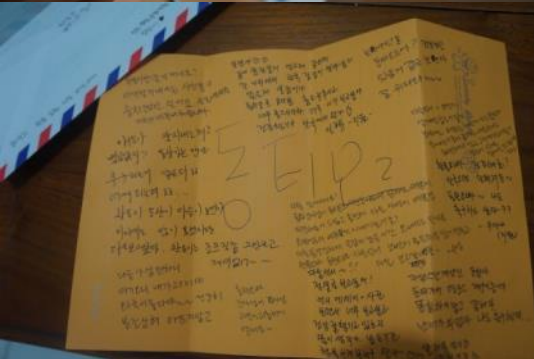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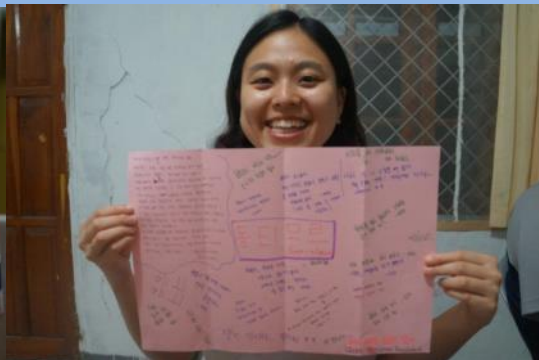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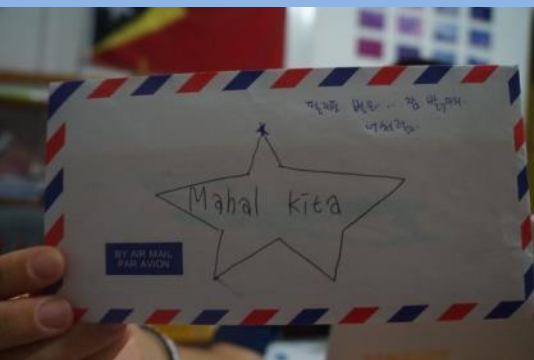


# 총장님의 필리핀 코디네이터 회의 & 선물

5월 11일 안토니오 총장님은 라온아띠 전체 코디네이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셨다. 현지 간사님인 마나 우디스는 사정상 가지 못하셨다.

회의를 위해 자료 준비를 하던 중에 티모르의 라온아띠는 종료된다는 사실이 전달 된 터라, 우리는 필리핀으로 떠나시는 총장님의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실까 걱정이 되었다.

5월 21일, 우려와 달리, 필리핀에서 돌아온 총장님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새로 받은 라온아띠 티셔츠까지 입고 출근하신 총장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셨다.



필리핀 팀과 방글라데시 팀의 롤링페이퍼.  
**보고 싶다 Kolega(친구들)!**

한국의 마나 루나가 보내주신 코코넛 가루가 떨어진 필리핀 사탕.  
단 게 싫다던 Lisa는 이 사탕이후 단맛성애자가 되었다.

# 5월의 요리 : Main chef. Maun Ivo



## 튀김과 수육의 달인 Maun Ivo





# 부서진 문과 방범의 두려움..

문이 부서진 것은 우연이었다.

같이 사는 클라라 간사님과 창효쌤 모두 사메로 출장을 가시던 날, 평소에는 잘만 되던 열쇠 구멍에 이상이 생겨 우리 숙소의 이중 문 중 하나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그 시기는 마침, 바로 앞 주인 집이 집 수리 공사를 한다고 마당에 계속 낫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던 때였고, 클라라 간사님이 요새 불안하다며 마당 큰 대문에 새로 자물쇠를 단 날이었다. 더군다나, 그 바로 전날 밤 같이 마당을 공유하는 중국인 끼오스 아저씨는 '어젯밤 마당으로 누군가 들어왔으니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했다. 결국 이보는 이날 문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했고, 간만에 센터에 들르셨던 오라시오 전 총장님까지 직접 숙소로 찾아와 문을 보고 가셨다. Ivo(이과 남자, 육군 출신)가 당일에 케이블 타이로 수습을 해놓아서 당분간 문을 잠글 수는 있었지만 하여간 문이 떨어졌던 그 시기,

**우리는 매우 두려웠었다...!**

문을 부순 열쇠  
담당  
Maun Dino →



우리가 두려워하자 직접 용접으로 문을 고쳐주신 Maun Jody

# 피드백 회의

사실 우리 팀은 지난 2개월간 해소되지 않는 **답답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애초에 갈등은 사소한 문제들에서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 그리고 활동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이 자잘한 불만을 만들어 냈다. 3월부터 그런 불편을 겪었음에도 우리는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곤 했다**. 말을 하지 않아 전달되지 않는 서로의 피드백들은 결국 **독단적인 개인 행동**을 만들어 냈다. 그렇게 작은 독단적 행동들이 모여 팀과의 괴리를 낳고, **대화의 단절**을 초래했다.

소통이 단절되고,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급기야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고 지내기까지 했다. 5월, 3대 1의 심각한 팀 내 분리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갈등이 심각해졌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우리의 갈등을 눈치 챈 마나 우디스는 우리들을 따로 불러 팀 관계에 대해 충고를 해주셨다. 우리의 갈등은 비단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를 곁에서 지켜보는 현지 간사님들에게 우리의 갈등은 그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일 수 있었다. 마지막 기수인만큼,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하는 우리가 우리 내의 갈등 때문에 현지 간사님들에게 짐을 지어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 우리와 매일 만나고 같이 노는 아이들에게도, 활동을 하며 매일 인사하는 테라산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갈등은 보일 수 있었다. **우리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갈등은 피해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하려고 했던 **피드백 회의**를 다시 시작해 **소통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문제를 지적하지도 못하고 걸돌기만 하던 3월의 회의와는 달리, 5월 피드백 회의는 서로 품고 있던 말들을 꺼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주었다.

이제까지 참아온 말들이 한번에 전달될 수 없어 여러 차례의 회의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그런 회의를 거침으로써 우리의 갈등은 이제, **느슨한 해결의 단계에 다다랐다**.



주말 나들이

# 주말 나들이 : 비치사이드 호텔

Lisa의 생일 축하를 겸해 5월의 첫 주말은 비치사이드 호텔에서 보냈다.

Lisa의 생일을 축하해주라며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던 클라라 간사님께서 물질적인 지원과 장소 추천, 그리고 맛있는 메뉴까지 추천해주시며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는 이곳에서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었다.

비치사이드 호텔은 딜리의 시내에서 크리스토투리로 가는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데, 아띠들이 주말나들이로 방문했던 곳 중 가장 멀리 있던 곳이었다. 간만에 딜리 시내에서 벗어나 택시를 타고 달리며 탁 트인 바다, 긴 해변과 곳곳에 있는 예쁜 식당들을 보았다. 비치사이드 호텔 로비에는 작은 공예품들을 팔고 있었고, 호텔 앞 해변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놓여져 있었다. 나무 그늘 밑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식사는 매우 근사했다. 시내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자유롭게 놀았던 휴일이었다.



# 주말 나들이 : 비치사이드 호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모래 사장에 앉아 흥 높이를 하다가 근처에 기웃거리던 아이들까지 끼워 함께 놀았다.



1. Beti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



2. Ivo가 보더니 신이 났다



3. 결국 Beti와 Lisa에게 응징을 당한다

통통배를 한 대 빌려 평소 물에 들어가지 않던 우리들이 바다에 들어가 뭉놀이를 했다.  
(나중에 듣는 바로는 우리가 놀았던 그 바다에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악어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 주말 나들이 : 어벤저스 2 관람



지난 3월, 우리는 티모르 플라자에서 장을 보다가 5월에 티모르에 어벤저스2가 개봉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설마 설마, 하다가 플라자 옆 영화관에서 정말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주말에 무조건 어벤저스를 보기로 했다.

영화 자막은 인도네시아어와 중국어였다. 덕분에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듯 했다. 영화관 시설이 좋지 않아 중간에 영화가 끊기고, 객석이 밝아지고, 소리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등등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토록 기다리던 어벤저스를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심지어 우리는 3D로 관람했다 ㅎㅎㅎ)



# 주말 나들이 : 성당 미사 참여



마을 제로 제안으로 가게 되었던 성당. 애초에는 스카우트 청년들을 만나기로 했지만, 결국 우리는 어린이 미사에 참석해 우리 센터 아이들을 만나 성가대를 구경했다.

성당은 테라산타로 가기 조금 전에 있다. 규모가 매우 크지만 사람이 워낙 많아 의자가 밖에도 놓여있다. 우리는 성가대 바로 뒤에 앉아 설교를 들었는데, 어린이 미사라 그런지 내용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자' 였다.

우리는 티모르에서 처음으로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어서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것 저것 신기한 게 많아 재미 있었다. 하느님의 몸이라는 하얀 과자까지 먹고, 미사는 끝이 났다. 우리 옆에는 성가대에 들어가지 못한 꼬마 여자애들 (노파, 비시, 따니아)이 미사 내내 군것질을 하느라 들락날락했다.



# 주말 나들이 : 성당 미사 참여



며칠 전부터 마운 제로라 노래를 연습하던 우리 아이들은 그날 성당에서 성가대로 앞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솔로 부분까지 있던 이스티와 아북. 레나는 앞에 나가 성경을 읽기도 했다. 아이들을 보는 내내 마음이 뿌듯했다.



일하는 마운 제로의 (센터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과 마운 제로가 소개해준 스카우트 청년들과 이야기하는 Lisa, Ivo, Dino



# 주말 나들이 : 한국 대사관 콘서트

지난 5월 13 -15일, 한국 대사관은 Timor - Korea Friendship Week를 개최했다. 우리는 마운 조디의 도움을 받아 대사관의 콘서트에 가게 되었다. 간단에 즐기는 문화 생활과, 또 두 달 만에 누리는 저녁 외출에 우리는 모두 들떠있었다.

이날 최고의 게스트는 그룹 갤럭시였다.( 우리 모두 공연에 몰입한 탓에 사진은 없다.) 이들의 공연에서는 펜스 밖에 서있던 티모르 사람들 모두가 떼창을 하기도 했는데, 이날 공연의 마지막 노래 "Taka matan (눈을 감다)"은 이제 Ivo의 애창곡이 되었다. 비보이와 퓨전 국악 공연은 다소 기대 이하였지만, 그룹 갤럭시와 저녁 외출 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만족했다.

더군다나 돌아오는 길에 마운 조디는 차로 멀리서 잠깐 크리스토레이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우리를 크리스토레이 근처까지 데려가 주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절벽에는 예수상이 서있던 그 풍경은 정말, 가히 감탄을 자아냈다.



# 주말 나들이 : 시장 구경과 피크닉

사무실에서 일하던 Beti가 “피크닉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가게 된 피크닉. 피크닉이라고 해봐야 도시락도 준비하지 않은 거였지만, 소풍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놀러 나가기로 했다.



사실 우리의 원래 목표는 타이즈 시장이었다. 타이즈 노상 시장을 지나가다 몇 번 본 후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며 타이즈 시장에 가기로 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타이즈 시장은 열리지 않았다. 아마 쉬는 날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옆에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일을 파는 길거리 가게를 구경하기로 했다. 짧고 툭툭한 바나나가 눈에 보여 우리의 도시락을 대신해 사하기로 하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 주말 나들이 : 시장 구경과 피크닉



돌고래 그림이 있는 미끄럼틀 그릴지만 엉덩이 바닥 부분이 찢어져 있어, 우리를 제외하곤 아무도 타지 않았다.



바나나 도시락을 싸두고 찾아간 공원. 칸막이 방들도 있었지만, 커플들이 장악해 우리는 밖 테이블에 앉았다.



공원 옆 바닷가를 걷는 중, 어깨가 둥글어 가방이 떨어지는 Ivo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길거리 테이블을 발견하고 거기 앉아 대화 하던 중 Beti에게 말실수를 해 쪼끄러진 Ivo.

# 5.20 Timor-Leste 독립 기념일

티모르는 21세기 유일한 신생국이다. 독립한지 올해로 13년째가 된다고 한다.  
독립 기념일이 다가오며 길에는 독립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이곳 저곳에 걸려있었다.

독립 기념일 전날인 5월19일,

우리는 오전 수업을 취소하고 오라시오 전 총장님과 함께 독립 운동의 시발점인 산타 크루즈, 그리고 독립 기념 박물관을 방문했다.

## - 산타 크루즈

산타 크루즈는 우리 나라로 치면 공동 묘지와 같은 곳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독립 운동을 위해 청년 단체에서 활동했던 Sebastiao Gomes의 무덤을 볼 수 있었다.

산타 크루즈에서는 군인과 시민의 대치로 인해 여러 사람이 죽었던 적이 있는, 가슴 아픈 역사적 장소이다. 산타 크루즈의 학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독립 운동이 활발해졌다고 하니 티모르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이다.

우리를 이곳에 데려가셨던 오라시오 총장님은 산타 크루즈를 설명하시면서 이곳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티모르는 없을 것이며,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도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 5.20 Timor-Leste 독립 기념일



## - 독립 기념 박물관

UNTL의 바로 옆에 있어 항상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지만, 평일에만 관람이 가능해 들어가보지 못했던 티모르 박물관. 독립 기념 박물관은 티모르의 왕조에서부터 독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시하고 있다. 그날 갔었던 산타 크루즈의 영상도 이곳에서 볼 수 있었다.

티모르의 역사에 대해 잘 몰랐던 우리들은 이날 박물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티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그리고 더 치열하게 투쟁의 역사를 거쳐왔다.



## 5.20 Timor-Leste 독립 기념일

### - 타이즈 마켓

박물관을 관람하고 나서, 우리는 총장님의 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타이즈 시장에 도착했다.

타이즈는 틀로 짜서 만드는 천으로, 티모르 사람들은 이것을 손님의 목에 걸어주며 환영의 마음을 표하거나 집에서 중요한 날 등에 꺼내어 걸어두며 장식하는 용으로 사용한다.

그만큼 타이즈는 티모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 타이즈의 무늬는 참 화려하고 예쁜 것들이 많아 볼 때 마다 새롭고, 눈에 띈다.

우리들은 매번 타이즈 시장에 들러 타이즈를 구경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들으신 전총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데리고 시장에 가주셨다. 타이즈 시장에는 타이즈를 비롯해 다양한 공예품이 있었는데, Lisa는 악어 나무 인형을 Beti는 팔찌를 사왔다.

타이즈의 종류도 너무 많고 예쁜 공예품도 너무 많아, 한 번 구경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곳이었다. 아마 귀국하기 전에 타이즈를 사러 한 번 더 들를 것 같다.



# 5.20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오전 8시부터 행사가 시작하며, 자기는 친구들과 함께 갈 것이라며 거기서 만나자고 철썩 같이 약속한 Mana meru (만 20세. 약속 파토 전과 1회)

- 1) 19일 오후 마나 메리는 청부 청사 앞에서 독립 기념 행사가 있다고 말하며, 자기는 친구들과 참석할 예정인데 같이 가자고 말했다.
- 2) 우리는 행사가 8시에 시작한다고 하기에 재미없는 식순이 끝나는 9시 30분까지 그곳에 가기로 한다.
- 3) 다음날 9시 20분 우리는 정부 청사 앞에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으나, 그 앞에는 행사를 보는 사람도, 행사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 4) 잘못 찾아온 것인가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을 때 마나 메리는 “Hau moras, Hau la Bele ba!(나 아파서 오늘 못 가)”라고 말했다.
- 5) 결국 주변 아저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아저씨는 행사는 말리아나에서 한다고 말했다. (말리아나 : 수도 딜리에서 멀리 있는 지방의 이름)
- 6) 메리의 두 번째 전과가 만들어 졌다.



행사가 있기로 했던 정부 청사의 옆 모습. 우리가 듣기로는 행사를 해야 하는데, 차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

# 5.20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결국, 메리에게 바람 맞고 행사도 없어진 우리는 근처 봉쿠스집에 들어가 아점을 먹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식당들도 문을 닫아 평소에 자주 가던 봉쿠스 집에 가지는 못했지만, 아무데나 들어갔던 식당도 맛있어서 만족스러웠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금방 돌아오기 아쉬웠던 우리는 후식까지 사먹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간만에 있었던 평일의 휴일은 그렇게 끝이 났다.



# 주말 나들이 : 구제 시장



발리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시 구제 시장을 찾았다. 과연, 발리에서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이번 달 내가 맡은 역할은 5월의 요리사 및 생활 전반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한국에서 요리라곤 스팸 굽는 것이라든가 계란 후라이 정도가 다였던 나는 겁도 났다. 다행히 3,4월에 보조 요리사로 들어가면서 어깨 넘어 배워둔 요리들이 있었다.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 수육도 닭도리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요리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소금과 간장의 중요성이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비록 맛은 비슷하지만 재료는 다르게 하여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각각 에어컨 없는 날, 고기 없는 날, 인터넷 없는 날로 정하였고 실천하였다. 처음에 에어컨 없이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하루를 지나고 나니 점심에 바닥에서 자고 저녁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고기 없는 날은 여수부터 실시하여서 생각보다 이제는 익숙해 지고, 오히려 풍부한 반찬을 먹는 것 같다. 마지막 인터넷 없는 날이 문제였다. 목요일에 아침에 내가 일어난 다음에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키면서 모르고 스포츠 경기 결과만 본 적도 있었다. 데이터 사용을 선불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공금으로 사용하는데 최소한 목요일은 지켜야 했지만 잘 안되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 잘 못 지키는 것은 인터넷 없는 날이지만 5월 한달 동안 행하면서 제일 힘든 날은 에어컨 없는 날이다. 이것을 하기에 제일 망설였던 사람은 사실 나다. 한국에서도 여름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틀거나 에어컨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이곳에서 마저 이러한 생활을 한다면 못 버틴다는 한계를 두었던 것 같다. 점심 먹고 쉴 때에도, 저녁에 나뭇잎을 할 때에도 선풍기 하나로 회전을 하면서 잘 지내는 하루를 보내며 비록 몸은 찻찻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전기세도 아끼고 에어컨, 편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화요일이 되었다.(몸이 힘든 만큼 기억도 많이 남는 것인지 에어컨 없는 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또한 여자 아이들이 하루 정도 더 에어컨 없는 날을 늘리자고 하지만 아직은 솔직히 내가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12기가 한 달을 했다는데 존경스러울 정도이다.)

이번 달은 매주 주말마다 어디로든 떠났던 것 같다.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 있는 곳으로 주말에 쉬는 날이면 멀리 구석구석은 물론 가까운 영화관까지 섭렵했다. 4월에 조금은 바쁜 생활 속에 지쳐 있었다면 5월에는 바쁜 생활에 익숙해 지고 조금씩 여유를 찾았던 것 같다.(하지만 3월보다 4월이 4월보다 5월이 숙소에서 더 힘들었고, 센터에서 하는 일도 많아 지고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파트를 나누는데 나들이 파트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았던 것 같다. 아직 간이 작아서 이게 많이 논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름 바쁘고 힘든 와중에 참 시간을 잘 쪼개서 놀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숙소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보내는 것 보다 밖으로 나가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 하기에 멋진 풍경을 구경하면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것에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4월부터 보자고 한 어벤져스 영화를 계획대로 관람한 것도 Beti의 피크닉 발언으로 즉흥적으로 바로 이어진 피크닉도 같이 나가고 놀면서 계획적이던 즉흥적이던 그것에 맞게 즐기면서 행복해 했던 것 같다.

5월 달까지 생활하면서 숙소에서 있었던 일들, 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기도 했다. 정말 사소하기도 혹은 정말 큰 일도 있기도 했다. 그럴 때 우리는 피드백 회의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좋은 이야기들만 꺼내면서 조금씩 참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다가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더 크게 어긋나서 누구는 더 참기도 누구는 이야기 하기도 하였지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결국 5월 350PPM도 하고 중간평가 준비도 하고 아미클라세 준비도 하고 바쁜 와중에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답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서로의 답을 듣기 위해 기다렸다.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도 우리는 힘들게 답답하게 생활했던 것 같다. 나 또한 참으면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오니까 한계가 온 것 같았고, 아닌 척을 했지만 받는 스트레스 양도 많았던 것 같다. 여수에서 부터 국내훈련서 부터 강조해 오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였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일 수 있구나, 다름을 이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일까 등등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다.

점점 이 영향력이 센터에까지 미쳐서 결국 우디스 간사님도 알게 되었다. 우디스 간사님이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좋지 않고 자기가 슬플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고 너희들이 좋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화도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우디스 간사님에게 그리고 센터의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우리의 문제가 센터로 번져갔고, 우리가 마지막 기수가 되었는데 이러한 라온아띠 그리고 생활들로 마무리 되는 것이 슬플 것 같았다. 3번의 이야기 끝에 그나마 점점과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인지 대충 덮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말도 많이 하고 다른 일로 화나거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행동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국내 훈련 기간에 팀의 한 명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팀원 모두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김일주 간사님이 여수에서 부터 하라고 했던 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던 단점 이야기 하기, 일부로 반대로 이야기 해보기 등이 생각이 났었고 더불어 나에게 해줬었던 이야기 중에 팀원 뒤에서 든든히 버텨주면서 생활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3월, 4월, 5월을 보내면서 마침 기간도 중간평가 팀이 오는 기간이 겹치면서 나를 내 스스로 평가 했을 때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피드백 이야기까지 나왔고 당사자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조금씩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Beti의 생각

성장배경과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학연과 혈연 마저 없는 네 사람이 모여 24시간을 함께 지내는 일은 때로는 생각보다 즐거워 24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지고, 때로는 생각보다 힘들고 지쳐 하루가 이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일이다.

우리는 4월 중순부터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고, 5월엔 마침내 갈등이 극에 달았다.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일도 아니었지만 먼 나라 티모르까지 와, 정작 티모르와는 조금의 관련도 없는 문제로 이렇게 마음을 소비하는 일에 하루는 화가 나고, 하루는 지치고, 하루는 포기하는 마음이 반복됐다.

그 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다. 부모, 형제와의 갈등이 아니라면 갈등 유발자와의 관계는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었고, 휴대폰 스팸 기능, 카카오톡 차단 기능, 페이스북 먼 친구 기능 등 다양한 기술은 우리가 이들과의 관계를 터치(클릭) 한 번으로 손 쉽게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런데 라온아띠 생활엔 그런 기능이 있을 리 없다. 전날 밤 혹은 그 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비좁은 미끄롤렛(미니 버스) 안에서 서로 살을 부딪혀야 하고, 식탁에 마주 보고 앉아 갑갑한 침묵 속에 밥을 먹어야 하고, 매일 매일 서로의 나눔을 들어야 하고, 때로는 피드백까지 해야 한다. 관계의 중단이나 차단을 위해 손 쉽게 터치하거나 클릭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우리를 지켜 보는 현지 스태프와 친진한 아이들이 있을 뿐이다.

국내훈련 기간 중 다름을 인정하는 일에 대해 많이 듣고 생각했지만 현실, 그러니까 내 코 앞에 존재하는 커다란 다름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성장배경의 다름, 삶의 가치관의 다름 등 이렇게 크고 거창한 다름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의 다름, 시간 관리의 다름, 좋아하는 일의 다름, 음식 취향의 다름, 말하는 버릇의 다름 등 작고 사소한 부분들이 수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자극하고, 마침내 거대한 갈등으로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었다.

우리는 서로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기도 하고, 없는 사람인 양 무시해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마음에 없는 친절을 베풀어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갈등과(그러니까 서로와) 정면으로 마주봐야만 했다. 그런 시도 끝에 현재는 회복기에 접어든 것 같다. 사람 마음이 참 재미난 게 언젠가는 정말로 얼굴도 못 볼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싫었다가도 다시 함께 살아진다. 서로 몇 마디 대화도 주고 받고, 가끔은 농담도 던져 보고,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면서, 참기도 하고, 가끔은 미안해하기도 하면서, 아주 가끔은 마치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웃기도 하면서 살아진다.

뭐 이렇게 쓰긴 했지만 언제 다시 전보다 더 큰 갈등이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올 지라도 두 번째 갈등은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덜 유치하게,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덜 지치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가져 본다.

숙소에서 내 생활은 5월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4월 말부터 활동에 대해서 회의감이 크게 들었다.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고, 하루 하루가 버거웠다. 모든 것이 귀찮아졌고 좋지 못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팀원들이 귀찮았고, 숙소나 센터에서나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다. 점점 더 심해졌고 이내 말 조차 하기 싫어졌다. 얼굴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티는 너무나도 났다.

나눔마다 혹은 Ivo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물어왔다. 혹시 기분 나쁜 일이나 불편한 점이 있냐고. 하지만 이야기 하기 싫었다. 원래 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했고, 그 때는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에 내 개인적인 행동들과 독단적인 결정 등은 팀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4명에서 해야 할 일을 3명에서 하게 되었고, 말도 하지 않고 이곳 저곳 돌아다니거나 약속을 무턱대고 잡는 등의 행동을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들을 하지 않으니 팀원들의 불편은 쌓여만 갔다.

결국 5월 중순에 팀원들이 이야기를 했다. 내 행동들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과 그것 때문에 겪는 불편 등을 이야기 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 했기에 불편함이 없어서 팀원들이 겪는 불편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초래한 일들은 너무나 컸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와서 후회하고 사과하기에 너무 늦어버렸다. 숙소에서의 일들은 센터로까지 이어졌다. 아티클라쎄를 비롯해 350PPM, 마나 우디스까지 영향이 갔다. 개인적인 행동들이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도 후회가 되고 지금도 많이 미안하다. 팀원들이 생활과 센터에서 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다는 게 고맙다. 이전부터 팀원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은 나다. 이미 늦은 사과이지만 다시 한 번 팀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이야기를 나눈 후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팀원들이 어떻게 느끼던 여기까지 상황을 가져온 사람은 나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내가 초래한 일기에 팀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미안함 밖에 없다. 6월의 숙소 생활에서는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바뀐 내가 되었으면 한다.

5월은 센터에서보다 숙소 생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고, 그만큼 팀 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던 한 달이었다. 여수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이번 달이 되어서야 터졌고, 그나마 터트린 덕분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 단계에 들어섰다.

해결 단계에 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제까지 서로 불편해만 하다가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너무 오래 묵힌 문제들로 인해 서로 마음이 상해있고, 누군가는 대화를 거부하려고까지 했었다. 너무 심각한 갈등이라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그걸 거부 당하자 말문이 막혔었다.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의 합의가 전제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사실 충격이었다. 아마 너무 오래 서로 침묵하고,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생겼던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에라도 피드백 회의가 제대로 실시 되었다는 게 다행이다. 거부감과 거리감으로 계속 대화를 단절한 채 모르는 척 지냈다면 지금까지 갈등은 더 심각해지기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도 모든 팀원들이 솔직히 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마련되었으면 한다. 여수에서부터 우리들은 문제 상황에 대해 말을 하는 걸 늘 어려워 하곤 했다. 일부러라도 피드백 회의를 하라던 간사님의 말씀이 왜 중요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아마 우리가 불만을 말하는 데 많이 서툴다는 것을 간사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다. 불편이 생겼을 때 빨리 말하면 가벼웠을 문제가 묵히고 묵혀지면 몇 배는 더 무거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가벼운 농담을 통해서라도 묵히지 않고 이야기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제야 우리 활동은 반절을 넘어섰다. 남은 시간은 지금의 관계가 변화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빠졌던 관계가 갑자기 좋아 질 수는 없다. 아마 나빠질 때 걸렸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데 조금해하지 않고 천천히, 서로 다가가고 노력해야 한다. 서로 마음을 달아버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관계의 회복은 우리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마음이 상할 테라산타와 YMCA 센터 사람들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두 달간 마음이 많이 상해 이제는 더 이상 회복에 의지가 없다고 말하려고 했을 때, 마나 우디스는 우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가 화가 난다고, 반드시 우리 네 사람은 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갈등은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가족들, 테라산타 전체가 느낄 수 있다고 하셨다.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했을 때, 그건 또 하나의 무책임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을 뻔 했다.



개신 에세이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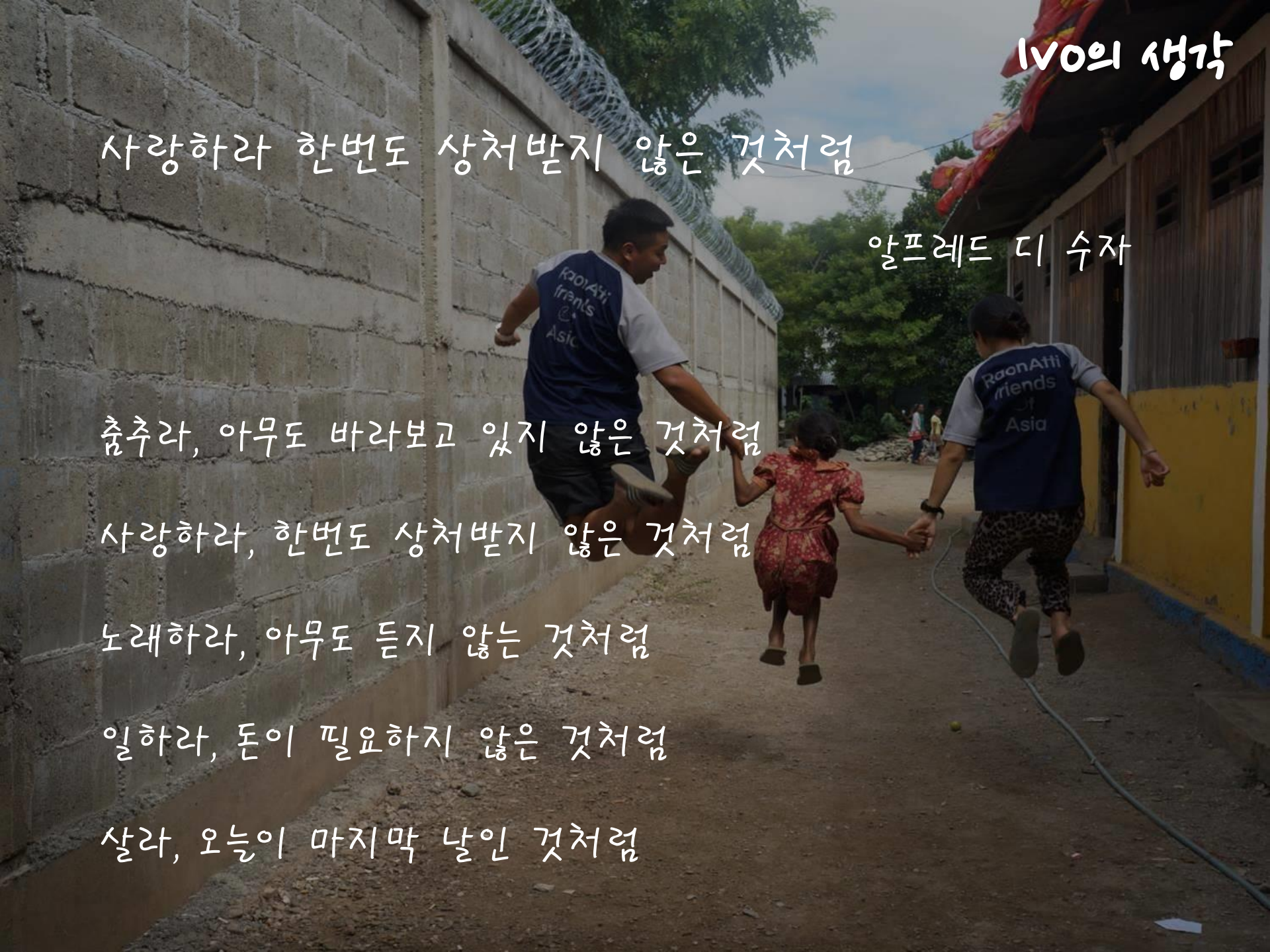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모두가 보는 글에 시까지 적으면서 에세이를 쓰려고 하니 조금은 부끄럽다. 책 한번 읽지 않고 대학생활을 보냈으니 친구들, 가족들이 의아해 할지도>> (음악수업을 하는 나에게 딱 맞는 시가 아닌가 싶다.)

민망함을 뒤로하고 쓴 시, 3월만 해도 이곳에 책장에 책이 많아서 인문학 감성을 지닌 공대생이라는 말을 하면서 읽은 첫 시집의 제목과 시이다. (4월에는 3월만 못하게 책을 읽고 5월에는 4월만 못하게 책을 읽고 있어서 인문학 감성을 지닌 공대생 타이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제목도 마음에 들고 내용도 요즘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우리가 티모르에서 마지막 기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다. 매번 하는 수업도, 놀이도, 심지어 매번 하는 인사마저도 특별해 지는 기분이 들었다. 매번 나는 8월에 한국에 돌아가니까 이별은 하지만 라온아띠는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다음 기수들이 보내는 보고서 보는 재미, 내가 아는 아이들, 마을 주민들은 다음 기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기도 했다. 이 아이들이 라온아띠라는 프로그램도 참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했던 것이 내 심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받아들이면서 특별한 그리고 좋은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러던 중에 어린이 음악 수업에서 아이들도 없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안면 정도만 있는 아이들 5명 정도가 모여있었고 그곳에서 노래를 알려주면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도 조금 진행 안 되는 듯해서 자포자기로 나 혼자 한국 노래도 하고 떼똥노래도 하였는데 아이들이 환호를 보내주었다. 드럼 치는 시늉도 하면서 빗자루를 거꾸로 집어 들고 노래를 하였다. 5명 정도의 아이들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10~20분간 미니 콘서트가 이루어 졌다. 10~20분간 나의 기분은 정말 최고였다. 노래방에서 보다 심지어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욱더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다. 에세이를 쓸 때쯤 다시금 그 시집이 생각이 났다. 마지막 기수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가슴 졸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즐기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생활을 알게 되었다.

사랑 하라, 노래하라, 춤추라, 일하라, 살라! 지금이 최선인 것처럼 즐기며 ^O^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나 슬프다. 그날도 그랬다.

수확기 너머 양동화 간사님으로부터 우리가 티모르의 마지막 기수라는 걸 들었다. 국민은행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동요하지는 말라고, 비록 라온아띠는 끝나지만 한국 Y와 티모르 Y의 관계는 계속될 거라고, 피스커피가 있지 않느냐고, 간사님은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 간사님께 티모르는 간사님의 젊음과 청춘이 담긴, 어쩌면 한국 이상으로 특별한 나라일 테니 우리보다 간사님 마음이 더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말들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기껏해야 학부생 수준이지만 그래도 경영을 공부한 사람으로 국민은행의 바뀐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티모르 사람들 중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니 이곳은 분명 기회의 땅이 아니다. 라온아띠가 아무리 국민은행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 한들 그 작은 로고에 관심을 기울일 사람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정책 변화가 백 번, 천 번 합리적이고 바른 의사결정이었다 할지라도 이곳엔 라온아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은행에 예금을 할 만큼 돈을 벌지도 못하고, 어쩌면 살면서 은행 한 번 이용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라온아띠를 알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쩌란 말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걸까?

이제 테라산타엔 라온아띠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이렇하다. 사람들은 보통 라온아띠가 마을을 위해 또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단순하게는 물건에 대한 기대가 그러한데, 우리와 친해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개 한 번쯤은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줄 수 있냐고 물어왔다.

우리가 난색을 표하면 마나 우디스에겐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몰래 달라고 하거나 한국에 돌아갈 때 주고 가라고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서운한 표정을 지어 보이곤 한다.

아띠클라쎄에 오래 참여해온 아이들 중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센터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값이 나가고 좋은 물품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아이들의 태도다. 아이들이 센터 물품을 몰래 가져가려다 우리에게 들켜도 아이들 표정엔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찾아볼 수 없다. 이곳 학교 교사들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센터엔 그런 사람이 없고, 라온아띠는 상냥하기 그지 없으니 아이들이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순간, 우리는 라온아띠가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일 수 있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안녕은 테라산타와의 안녕이지, 티모르와의 안녕은 아니었다.

양동화 간사님과 통화한 다음 날엔 청소년 미술 수업이 있었다. 아이들은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웃고 떠들고 노래를 불렀는데, 나는 그 신나는 분위기 속에 홀로 슬펐다.

이제 막 센터의 고정 멤버가 된 네티와 그 무리들, 초반에 아북과 다툼이 있긴 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아이들로 학습 의욕과 능력이 좋은 편이라 앞으로가 더 기대 되는데, 매 기수 프로그램마다 열심히 참여하는 고마운 아북, 정말 사춘기에 접어든 건지 부쩍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또래들 사이에서 때로는 소심하게 때로는 당돌하게 구는 모습이 귀여운데, 어떻게 이토록 갑자기 안녕을 고하고 뒤돌아 설 수 있단 말인가?



이 소식을 모르는 아이들이 종종 물어온다. 우리가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기수는 언제 오는지. 그럼 나는 사실을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몰라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뿐이다. 그런 순간마다 마음이 아프다. 이별의 순간, 마지막의 순간을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괴로운 일이다. 마지막을 예감하지 못한 상대의 천진함이 어찌나 슬프게 다가오는지.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13기가 아니라 12기였다면, 다만 한 기수라도 빠른 기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빠띠가 학교에 다니면 그 모습은 또 얼마나 귀여울지, 조그만 게 공부 욕심은 있어 공부한답시고 책도 읽고 노트에 글도 적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지. 개구쟁이 마르띠누가 마음 착한 아리따와의 첫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마르띠누, 마테우스, 마르페, 바울 4형제의 수업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지. 노파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도 그렇게 공손하고 참하게 구는 아이일지. 레오는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할지.

우리도 보고 싶다. 후배 기수가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내게 아빠띠는 언제나 조그만 5살 아이라는 것이, 마르띠누는 서툴게 첫사랑을 시작한 아이로 멈추어있다는 것이, 마음 속 자라지 않을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테라산타의 모습이 너무 아쉽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안녕을 고하는 것이 이들에게 그나마 혼란이 덜 하고 상처가 덜 될지 고민해야만 한다. 그 동안은 늘 “Ate logu.(오후에 만나자)” “Ate aban.(내일 만나자)”, 길어야 “Ate semana oin.(다음 주에 만나자)” 인사하곤 했는데, 이제 8월이면 다음이 없는 인사를 건네야만 한다.



국내 훈련이 끝나고 휴식 기간에 친구들이 물어왔다. '5개월이나 있는 다고? 네 성격에 버티겠냐? 차라리 안 가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은 대부분 걱정부터 했다. 워낙 오랜 봐온 친구들이고 나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조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사실 나도 국내 훈련을 마치고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 달 밖에 같이 지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과 나와는 맞지 않는 행동들, 많이 달랐다. 국내 훈련을 마치고 나서 꽤나 많이 지쳐있었다. 라온아띠로서 활동을 계속 해야 하나라는 생각과 그럼에도 가고 싶은 욕심에서 갈등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가기로 결정했다. 이대로 포기하면 지는 기분이 들어서 욕심을 부렸다. 나만 조금 어떻게 바뀌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티모르 행 비행기를 탔다.

여기에 와서는 벌써 3달이 지났다. 3월, 4월, 5월 점점 달이 지나갈수록 힘에 부쳤다. 5월은 좋지 못한 달이 되었다. 4월 중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나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활동들과 생활이 점차 스트레스가 되어가고 있었다. 센터에서 활동도 회의가 들었다. 내가 뭐라고 아이들에게 휘둘러야하고 왜 장단을 맞춰가면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아이들을 봐도 즐겁지 않고 센터에서 있어도 무료했고 어딜가든 화만 났다.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곳에 와서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활동을 지속해야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 귀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나니 행동부터가 변했다. 내 마음대로 행동했고 될 때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했다. 문제점들이 눈에 보였다. 그런데도 고치려는 마음이 없었다. 내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가득차 있었다. 사소한 것부터 꽤나 큰 캠페인까지 다 귀찮았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고 팀원들은 귀찮았다. 내 기분에 따라 행동했다.

결국 참다참다 팀원들이 나에게 대해 얘기를 꺼냈다.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순간에도 나는 내 이야기를 하기가 싫었다.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느끼는 불편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단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달라고만 했다. 팀원들은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나는 고민하게 됐다. 라온아띠 활동을 계속 할 것인지 귀국할 것인지 두 가지만 놓고 생각을 했다. 팀원들이 여러 가지로 나를 도우려고 했던 것도 알고 노력한 것도 알고 있었다. 한 계점이 다다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미안함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만약 이대로 귀국을 하게 된다면 팀원들에게 마지막까지 폐를 끼치다가 가는 기분이 들었다. 정말 그렇게 해버린다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느꼈다. 뭐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 계속된 개인적인 행동으로 불편만 주었던 나를 팀으로서 끝까지 같이 하려는 3명이 고마웠다. 하지만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팀원들이 써왔던 피드백들을 다시 다 읽었고 조금이나마 생활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것뿐이었다.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조차 안 믿겨질 정도로 내 행동은 이기적이었다. 항상 일이 커지고 나서야 후회를 한다. 이번에도 그렇다. 후회한 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함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팀원들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나씩 개선해나가야 할 차례다. 센터에서도 썩 좋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우처럼 보였고, 장단 맞추기는 점점 힘이 들었다. 아띠클라세 또한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가 들었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보니 속소에 까지 영향이 갔고 이후 아이들과 마나 우디스에게 까지 영향이 갔다. 결국 우디스 간사님이 면담을 하자 하시고 면담 후에 다시 한번 반성했다.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티모르에서 남은 기간은 2달이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것 같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내 모습이 변화됐으면 한다. 개인 에세이에 벌써 3번째 쓰는 말이지만 이번에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센터에서의 이야기를 하자면 5월 중순에 다다랐을쯤 우리가 티모르에서 마지막 기수가 될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솔직히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요하지는 않았다. 차라리 내가 마지막 기수라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마지막인 만큼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은 없다. 오히려 무언가를 하려다가 아이들에게 기대를 심어줄까봐 두렵게 느껴진다. 가장 두려운 것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언젠가는 이야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 아이들이 자꾸 물어온다. ‘언제 돌아가?’, ‘돌아가면 언제 다시 올꺼야?’, ‘새로운 라온아피는 언제와?’ 아이들도 우리와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질문들을 받을때 마다 나는 대답을 회피한다. 괜한 말을 했다가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줄까 두렵기도 하고, 아직 대답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젠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정말로 오면 아이들의 반응 또한 두렵다.

내 기분에 따라 아이들에게 행동했던 내 5월의 절반이 아쉬워진다.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해보지만 이미 늦었다. 나와는 다르게 자신의 기분이 어떻든 항상 나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걱정된다. 아이들은 참 한결같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참 좋다. 2달이란 시간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써야 할까 생각해 보지만 이것 또한 어렵다. 그냥 4월 처럼 아이들처럼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놀면 되지 않을까.



## Lisa의 생각



이제 우리 활동이 중반을 넘어서고, 새롭던 센터 활동도 이젠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오전 수업, 낮잠과 점심, 오후 수업, 저녁식사, 나눔 및 활동 회의, 수업 준비. 이 생활 패턴이 이제는 익숙하다. 약간은 권태롭다면 권태로운 시기인 것 같다. 오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 덜 깬 몸으로 미끌롤렛을 타고 있다면 오늘 오후 수업은 쉬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가벼운 신선함이 필요하다. 350PPM이 그런 신선한 계기가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이렇게 쉽게 질려 하는 사람인지 몰랐지만, 아마 나는 조금 지겨운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이번 달 권태롭다는 걸 느꼈을 때부터 지겨워만 하고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능동적이었다면 권태로움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겠지.

다음 달에는 비자 트립, 홈스테이 등이 있으니, 아마 이런 권태로움은 내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그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얼른 다시 열정적이던 4월의 모습을 되찾고 싶다.

게다가, 우리 팀은 티모르에 파견되는 마지막 라온아띠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는 더 이상 테라산타에 새로운 라온아띠가 오는 것도 아닌데, 무기력하게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건 나중에 나에게도 분명 속상할 것이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 기회가, 시간들이 소중한하고 하나 하나 지나가는 것이 아쉽다.



2월, 라온아띠에 선발되고 첫 국내 훈련을 갔을 때 여수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라온아띠가 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지원하게 된 것인지, 내게 물었고 나 스스로도 자주 고민하고 생각했었다.

팀원들은 다들 이런 저런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딱히 말할만한 지원 이유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사실 아직은 라온아띠는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가봐야 알지 않겠나 싶었다.

라온아띠 활동이 중반을 넘어선 지금, 이제는 나도 라온아띠가 내게 주는 의미를 알 것 같다. 저번 라온아띠 다큐 팀에서 영상을 보내달라고 말했을 때는 그저 뭐라고 라온아띠를 표현해야 하지, 단어를 찾기에만 급급해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지는 못했었다.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를 아무거나 그냥 말하고 말았던 것 같다.

지금도 아직 한 단어로 라온아띠를 정의하기엔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지금 내게 라온아띠는, 진짜 나를 보게 해준 휴식이다.

티모르에 오고 나서 나는 일이나 어떤 성과의 압박 없이 온전히 나 스스로를 보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기가 죽어 스스로를 질책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아무런 대가나 목적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날 정의할 때, 내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더 신뢰하던 나에게 티모르의 지금 생활은 무척이나 편안하고 정말, 힐링이 된다.(이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Ate Fulan oin!!

